

문화유형에 따른 동기의 차이

조 금 호

서강대학교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권의 인간이해 양식(관계중심적 인간관과 개체중심적 인간관)에서 나오는 세 차원의 강조점의 대비를 기본틀로 하여, 두 문화권에서의 동기의 차이를 개관하였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의존성·자기억제·행위가변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타인지향 동기, 사회지향적 성취동기, 욕구통제동기, 동조동기, 자기개선동기가 두드러지고,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율성·자기표현·안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지향동기, 개인지향적 성취동기, 환경통제동기, 자기고양동기, 일관성추구동기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개관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의 기본틀의 유용성, 동기의 문화구속성 및 두 문화권의 근본동기(자기확장동기와 자기실현동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동기가 돌아왔다.” 지난 10여년 동안 동기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부활되어 왔다고 보면서 Pittman(1998, p. 549)이 한 말이다. 동기의 문제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심리학 일반과 사회심리학의 핵심적 연구 주제 중의 하나이었으나, 60년대 후반에 귀인이론의 대두와 뒤이은 인지혁명(cognitive revolution)으로 인하여 관심이 쇠퇴하여, 70년대와 80년대에는 심리학, 특히 사회심리학의 무대 전면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70년대와 80년대의 심리학을 지배해 온 인지주의자들이 심리학의 연구 영역에서 동기를 부차적인 또는 “제2급의 연구 영역”(Reeve, 1992, p. 23)으로 타기하게 된 원인은 60년대까지 동기 연구의 배경이 되었던 “기계적 은유”(machine metaphor)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Petri, 1996; Weiner, 1991).¹⁾ 이는 동기를 생득적인 내장 기제(innate pre-wired mechanism)에 의해 작동되는 반사적인 힘으로서, 자발적인 통제가 되지 않으며, 이에 의한 행동은

1) 동기는 직접 관찰이나 측정이 불가능한 중개변인(intervening variable)으로서, 환경 조건(예: 음식물의 탈핍)이나 외현적 행동, 생리적 변화 및 자기보고에 의해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밖에 없는 가설적 구성개념(hypothetical construct)이다(Petri, 1996; Reeve, 1992). 심리학을 포함한 과학사에서는 간접적이거나 친숙하지 않은 현상 또는 과정을 설명할 때에는 대체로 은유(metaphor)를 사용해 왔는데(Geen, 1995a; Gentner & Grudin, 1985; Leary, 1990), Weiner(1991)는 가설적 구성개념인 동기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두 가지 은유가 있어 왔다고 보고 있다. 그 하나는 인간과 동물의 동기 체계를 이원화하여 보는 심신관계(mind-body relationship)에 관한 이원론 체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신적 은유”(Godlike metaphor)이고, 또 하나는 Darwin의 진화론 이후 인간과 동물의 진화적 연속성을 강조하는 일원론 체계에 근원을 두고 있는 “기계적 은유”(machine metaphor)라는 것이다. 여기서 “신적 은유”는, 인간은 신이 자기의 형상을 빌어 창조한 존재이어서, 신의 속성인 영혼(soul)을 가지고 있는 이성적 존재라고 보는 입장으로, 진화론 이전의 의지(will)로서의 동기관을 대표하는 은유체계로서, 동기에 관한 인지이론인 기대-가치이론(expectancy-value theory)과 귀인이론(attributional theory)의 배경이 되는 은유이다. 이에 비해 “기계적 은유”는 인간을 본능(instinct), 추동(drive) 및 흥분(arousal) 또는 생득적 기제에 의해 동물과의 연속선 상에서의 기계체계

의식적으로 인식되지 않고도 수행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1930년대로부터 60년대까지의 동기 연구를 지배해 왔던 은유체계이다. 이러한 입장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자발적·의식적 선택 및 정보처리과정과 인간 행동의 목표지향성을 강조하는 인지이론가들의 입장과는 상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타기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70년대와 80년대에 동기에 대한 관심은 거의 사라졌거나(Fiske & Taylor, 1991) 또는 동기를 인지체계에 부속되는 하위체계로 보려는 시도(예: Weiner, 1974)들이 이어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인지주의자들의 입장은 너무나 낙관적이었음이 곧 드러나게 되었다. 즉, 합리적 귀인모형(예: Jones & Davis, 1965; Kelley, 1967, 1972)의 예측과는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귀인편향(attribitional bias)이 찾아지고, 이들이 인지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곤란하며, 동기적 설명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Kuhl, 1986; Tetlock & Levi, 1982 등)과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의 고유한 한계와 결합으로 인해 비합리적인 사회추론(social inference)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Nisbett & Ross, 1980; Kahneman, Slovic, & Tversky, 1982; Tversky & Kahneman, 1974 등)이 밝혀지면서,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신념이 절하되어져 왔던 것이다”(Petri, 1996, p. 21). 이러한 연구들과 함께 동기나 정서를 인지의 부속체계로 보려는 시도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대두되었다.³⁾ 이러한 배경에서 목표설정과 자기개념 등 인간 행동에 미치는 동기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동기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회복되어졌던 것이다(Geen,

1995a; Reave, 1992). 이렇게 동기를 심리학의 연구 전면에서 몰아내었던 인지주의가 역설적이게도 동기를 다시 끌어들이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으며(Fiske, 1993; Geen, 1995a; Kunda, 1990; Reeve,

3) 이러한 반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Zajonc(1980, 1984)와 Lazarus(1982, 1984)간의 정서-인지의 관계에 관한 논쟁이다. Zajonc는 정서와 인지의 개별성과 정서의 인지에 대한 우선성(primacy)을 주장하고 있고, Lazarus는 정서는 인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인지의 우선성을 주장하고 있다. Lazarus의 입장은 인지론자들의 대표적인 입장으로, 이들은 인간 심리의 열소적(熱素的) 요인(hot factor)인 동기와 정서를 인간 행동의 설명에 불필요한 체계로 보아, 이를 냉소적(冷素的) 요인(cold factor)인 인지의 부속체계로 보는 입장(Markus & Zajonc, 1985, p. 141)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Zajonc는 인지, 동기, 정서가 각기 개별적인 설명력을 갖는 심리구성체라고 보는 입장인 것이다.

인간의 심리구성체를 知(cognition, thinking), 情(affect, feeling), 意(conation, willing)의 삼분체계로 보는 것은 현대심리학이 받아들인 서양 철학의 전통이었다(Hilgard, 1980). 이 중 情은 현대심리학에서 정서(emotion)로, 意는 동기(motivation)로 탐구되어 왔다(Parkinson & Colman, 1995). 그러므로 정서와 인지의 개별성을 주장한 Zajonc는 인지유일체계 또는 기본체계(인지)와 부속체계(정서·동기)로 보려는 인지주의에 반대하고, 전통적 입장으로 회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혹자는 인간의 심리구성체를 知(knowledge)와 願望(desire)의 이분체계로 파악하기도 한다(Parkinson & Colman, 1995). 여기서의 願望은 둘 다 라틴어의 *movere*(움직인다)에 어원을 두고 있는 *motivation*(동기)과 *emotion*(정서)을 포괄하는 것으로(Parkinson & Colman, 1995), 인간 행동의 열소적 압력체계(Kövecses, 1990) 또는 행동 동원체계(Duffy, 1962)를 지칭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Zajonc는 이러한 이분체계의 입장에서 냉소적 체계(인지)와 열소적 체계(동기·정서)의 대등구조로 인간을 파악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분체계를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Tomkins(1981)와 Buck(1985)을 들 수 있다.

4) 인지와 동기(및 정서) 사이의 관계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사회심리학의 연구사에서 연구의 기본 입장의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사회심리학은 출발 초기부터 인지론적 입장이 강해서, 사회적 자극과 반응 사이의 중간자로서의 인간을 사회적 사고자(social thinker)로 보는 전통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사회적 사고자로 인간을 보는 전통에서 문제의 핵심은 인지와 동기(및 정서) 사이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Fiske & Taylor, 1991).

이렇게 사회적 사고자로 인간을 보는 입장의 초기(1950년대~60년대 중반)에는 인간을 일관성 추구자(consistency seeker)로 보아 근본적으로 행동의 제일원인을 불일치 해소 동기로 보는 동기론적 관점이 우세했으나, 1960년대 중반 이후 귀인과정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인지 자체에서 행동의 원인을 찾는 입장들에 의해 동기에 대한 관심은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리하

로 이해하려는 입장으로, 정신분석이론(psychoanalytic theory), 추동이론(drive theory) 및 동물행동관찰학적 이론(ethological theory)의 배경이 되는 은유라는 것이다(Weiner, 1991).

2) 이러한 시도들에서는 진화론 이전의 “신적 은유”의 체계로 되돌아가서 동기를 보려 했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즉, 동기를 합리적·합목적적인 이성의 통제 아래 두고, 동기에 의한 행동도 의식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며, 동기의 자발적 선택 기능과 목표지향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합리적 인지과정에 더해서 합목적적인 선택과 통제를 강조하는 기대-가치이론과 귀인이론에 의한 동기의 파악 등이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다(Franken, 1998; Petri, 1996; Weiner, 1991).

1992), 이리하여 오늘날 동기가 다시 핵심적인 심리학의 연구 영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던 것이다⁵⁾(조은경, 1994; Franken, 1998; Geen, 1991, 1995a, b; Jones, 1985; Petri, 1996; Pittman, 1998; Pittman & Heller, 1987; Reeve, 1992). 이러한 경향은 더 나아가 사회인지와 대인지각(Fiske, 1993; Fiske & Taylor, 1991; Kunda, 1990 등), 성격과 사회심리학 일반(Baumeister, 1986, 1991, 1998; Buss & Cantor, 1988; Higgins & Sorrentino, 1990; Markus & Zajonc, 1985; Pervin, 1989; Sorrentino & Higgins, 1986 등) 및 문화 적응(안신호, 1999)을 동기적 개념으로 재정립해 보려는 연구 동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동기는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떤 목표를 향한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을 활성화하고 지속하게 하는 힘이다(Beck, 1983; Franken, 1998; Geen, 1991, 1995a, b; Geen & Shea, 1997; Heckhausen, 1990; McClelland,

1985; Petri, 1996; Pittman, 1998; Pittman & Heller, 1987; Reeve, 1992 등). 이러한 동기 행동의 가장 큰 특징은 목표지향성과 선택성이다(Beck, 1983). 이러한 동기과정에는 가용적인 목표의 평가, 이에 도달할 수 있는 전략의 고안과 선택 및 진전 정도의 평가 등의 인지과정과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쾌·불쾌 등의 정서과정이 필연적으로 개재한다. 즉, 이 세 과정은 분리할 수 없는 상호 연관된 체계인 것이다(Geen, 1995a).

이러한 인간의 동기는 대부분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된다. 인간은 타인이나 집단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행위와 동기의 맥락이 사회적일 수 밖에 없고, 인간의 동기화된 행위는 대체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수행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만드는 것이다(Geen, 1995a). 그러므로 동기과정에서 추구하는 가용적인 목표의 종류와 이에 도달할 수 있는 전략 등은 사회적·문화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동기는 인지 및 정서과정과 마찬가지로 문화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Choi & Nisbett, in press; D'Andrade & Strauss, 1992; Fiske, Kitayama, Markus, & Nisbett, 1998; Kitayama & Markus, 1994; Kitayama, Markus, Matsumoto, & Norasakkunkit, 1997; Kornadt, Eckenberger, & Emminghaus, 1980; Markus & Kitayama, 1991a, b; Munro, Schumaker, & Carr, 1997; Nisbett & Cohen, 1996; Ross & Nisbett, 1991; Triandis, 1989, 1990 등).

사회심리학의 무대 전면으로의 동기의 복귀는 바로

여 인간은 합리적·논리적으로 행동의 원인을 정확하게 추론하고 분석하는 존재라고 보는 일상적 과학자(naive scientist)로서의 인간 파악의 입장이 대두되었는데, 여기서 동기와 정서 같은 열소적 요인은 냉소적 정보처리 과정에서 작용하는 오염변인일 뿐인 지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후 사회추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197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인지적 절약자(cognitive miser)로 인간을 보는 입장에서는, 사람은 비록 여러 가지 인지적 한계와 결함을 안고 있지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보처리를 하는 존재라고 보며, 귀인편향같은 비합리적 판단도 인간의 인지 체계 자체의 결함 때문이라고 봄으로써, 행동 과정에서의 동기와 정서의 역할은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행동을 순전히 인지의 함수로서만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기와 정서 같은 열소적 요인을 정보처리과정으로부터 분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들은 인지 과정에 선행하는 별개의 심리내용으로서(Zajonc, 1980, 1984, 1998), 인간은 동기와 정서의 영향을 받아 사고하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동기적 책략가(motivated tactician)로서의 인간 파악의 입장이 대두하게 됨으로써, 연구의 초점이 인지 능력의 제약에 의존된 인지 과정으로부터 지각하는 주체의 목적, 동기 및 정서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동기와 정서가 인지 책략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봄으로써, 인간 행동의 결정 요인으로서 인지보다 동기와 정서에 더 무게를 두는 초기의 입장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Fiske, 1993; Fiske & Taylor, 1991).

이렇게 인지와 동기(및 정서)는 지금까지 사회심리학에서 서로 배척적이면서도 또 서로를 이끌어 가는 양가적인(ambivalent)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의 동기에 대한 관심의 회복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시대에 따른 동기에 대한 연구 관심의 이러한 부침(1960년대까지: 고조→1970~80년대: 쇠퇴→1990년대: 고조)을 Pittman(1998)은 《사회심리학 편람》(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의 편집과 관련하여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이 편람의 제1판(Lindzey, 1954)과 제2판(Lindzey & Aronson, 1969)에는 각각 Murphy(1954)와 Berkowitz(1969)의 집필로 동기에 관한 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3판(Lindzey & Aronson, 1985)에는 빠졌다가, 다시 제4판(Gilbert, Fiske, & Lindzey, 1998)에는 들어 있다(Pittman, 1998)는 것이다. 이러한 동기에 대한 연구 관심의 부침은 앞에서 본대로(註4 참조), 사회적 사고자로 인간을 보는 입장의 변화(1960년대 중반까지: 일관성 추구자→1970~80년대: 일상적 과학자·인지적 절약자→1990년대: 동기적 책략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케를 같이 하고 있다. 동기에 대한 관심은 인지과정과 별개로서의 동기라는 심적 구성체에 의 관심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심성 전반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에 관한 탐구, 즉 문화와 인간 심성의 상호구성성의 탐구라는 시대정신(zeitgeist)과 함께(Munro, 1997) 부상했던 것이다. 즉, 동기는 “문화와 함께” 돌아온 것이다.⁶⁾

필자는 지금까지 집단주의-개인주의 문화유형에 따른 대인평가와 귀인(조공호, 1993, 1996) 및 정서(조공호, 1997a)의 차이를, 두 문화유형에서의 인간관과 자기관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사회행위의 원동력과 목표(의존성-자율성 강조), 자기표현의 양식(자기억제-자기표현 강조) 및 행위의 변이가능성(가변성-안정성 강조)의 차원에서 강조점의 대비를 개념틀로 하여 살펴 보았다. 이제 여기에서는 앞선 작업들에 이어서 두 문화유형에 따른 동기, 특히 사회적 동기의 차이를 앞선 작업들과 같은 개념틀을 통해 고찰해 보므로써, 문화와 인간 심성의 관계에 대한 문화구성주의(cultural constructionism)의 논지를 확인함은 물론, 전형적인 집단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한국인(Hofstede, 1980, 1983, 1991)의 동기 이해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기본틀

지금까지 사회심리학이 지향해 왔던 보편적 행동원리의 추구가 근본적으로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Gergen, 1973, 1985; Shweder, 1990; Shweder & Bourne, 1984; Shweder & Miller, 1985 등), 문화와 인간 심성(the psyche) 사이의 역동적 상호 구성(dynamic mutual constitution)에 대한 연구가 오늘날 사회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 경향의 하나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⁷⁾ 이러한 문화에 관

6)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화가 인간의 동기에 미치는 영향 또는 문화유형에 따른 동기의 변화 등에 관한 연구들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90년대에 들어서서 “동기와 문화”라는 표제를 붙인 편저들(예: D'Andrade & Strauss, 1992; Munro, Schumaker, & Carr, 1997)로 종합되고 있음은 이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한 사회심리학의 연구는 특수주의적 접근, 보편주의적 접근, 유형론적 접근, 생성구조론적 접근, 문화복합적 접근, 시계열적 접근 등 여러 방향에서 전개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이 분야 연구의 주류를 형성했던 것은 특징적인 몇 문화유형들을 찾아내고, 이들의 제반 행동과 심성의 차이를 대조해 보고자 하는 유형론적 접근이었다(Fiske et al., 1998). 이러한 유형론적 접근에서 지금까지 문화차를 비교하는 핵심 차원으로 삼아 온 것은 대체로 Hofstede(1980, 1983, 1991)가 제시한 집단주의-개인주의(collectivism-individualism)의 분류체계이었다(Goodwin, 1997; Kagitcibasi, 1994).

한 사회를 이렇게 집단주의 또는 개인주의로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에 관한 견해의 차이이다(조공호, 1993, 1996 참조). 동아시아와 남미를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를 개인사이의 관계 또는 집단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는 개인 사이의 상호의존성 및 내집단과의 통합과 조화를 강조하고 추구한다. 이에 비해 북미와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는 타인이나 집단과의 분리과 독특성 및 개인적 이익과 개성을 강조하고 추구한다.

관계중심적 인간관과 개체중심적 인간관

이러한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에 대한 인식차는 필연적으로 두 문화에서의 인간 일반에 대한 인식과 자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즉, 사회의

7) 이러한 사실은 《사회심리학 편람》의 제4판(Gilbert, Fiske, & Lindzey, 1998)에서 “새로 출현하는 관점”(Emerging Perspectives) 중의 하나로 “사회심리학의 문화적 기반”(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Fiske, Kitayama, Markus, & Nisbett, 1998)을 들고 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책에서는 새로 출현하는 사회심리학의 관점으로 문화심리학 이외에 인간의 사회적인 행동의 진화론적 근거를 탐색하는 “진화 사회심리학”(Evolutionary social psychology; Buss & Kenrick, 1998)을 들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심리학의 연구가 시(진화심리학)·공간(문화심리학)적인 관점의 확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근본적인 구성 단위를 사회관계 및 그러한 관계 속의 역할이라고 보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상황의존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인간관을 갖게 되어(Dumont, 1970; Miller, 1984; Miller & Bersoff, 1992 등), 결과적으로 상호의존적 자기(interdependent self: Kitayama et al., 1997; Markus & Kitayama, 1991a, b) 또는 집단적 자기(collective self: Triandis, 1989)의 개념이 우세하게 되므로써, 강한 사회적 정체감(social identity)을 갖게 되지만(Triandis, 1990; Weldon, 1984), 개인적 원망과 선호를 추구하는 자기 본위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 사회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보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상황유리적이고 개체중심적인 인간관을 갖게 되어(Miller, 1984; Miller & Bersoff, 1992; Sampson, 1977, 1989 등), 결과적으로 독립적 자기(independent self: Kitayama et al., 1997; Markus & Kitayama, 1991a, b) 또는 사적 자기(private self: Triandis, 1989)의 개념이 우세하게 되므로써, 강한 개인적 정체감(personal identity)을 갖게 되는 것이다(Triandis, 1990; Weldon, 1984).

이러한 두 인간관은 사회 행위의 원동력과 목표, 자기 표현의 양식 및 행위의 변이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조망을 낳게 된다. 즉, 관계중심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존재로 보므로, 사회 행위의 원동력을 관계 속에 내포된 역할과 타인에의 관심 및 배려에서 찾게 되고, 결과적으로 관계 속의 조화의 추구가 사회 행위의 근본적인 목표라는 입장을 갖는다. 반면에 개체중심적 인간관에서는 독립적인 개인에게서 사회 행위의 원동력을 찾게 되고,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특성의 추구가 사회 행위의 근본적인 목표라는 입장을 갖는다.

그리하여, 관계중심적 인간관에서는 개인적인 원망이나 목표의 추구는 사회관계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조화를 해치게 되기 쉬우므로, 가능하면 자기를 억제하여 양보하고 겸양하며 협동할 것을 강조한다. 이와는 반대로 개체중심적인 인간관에서는 자기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자기 주장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개인 간의 경쟁과 공정한 교환 및 자기고양을 강조한다.

또한, 관계중심적 인간관에서는 사회의 안정은 그 구성 요소로서의 관계의 안정에 근거한다고 보게 되고, 결국 다양한 상황과 관계에 따른 역할의 변이에 맞추어 스스로의 행위를 적합하게 조정하는 데에서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므로써, 행위의 상황에 따른 변이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개체중심적 인간관에서는 사회의 안정은 그 구성 요소로서의 개인의 안정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게 되고, 따라서 각 개인은 지속적이고 일관되는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보아, 상황과 관계에 따른 변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러한 변이 또는 비밀관성은 개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두 문화권의 인간관의 차이는 결국 사회 제도와 행위 규범의 근본적인 차이를 빚게 되어(Shweder & Miller, 1985), 문화권에 따른 인지·정서·동기의 제반 활동에서의 차이(Markus & Kitayama, 1991a, b)를 유발하게 된다. 문화권에 따른 이러한 인간관의 차이에 의해 타인에게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특성이 다르게 되고, 지각자는 이러한 특성에 지각적으로 조율되어, 결과적으로 타인이 제공하는 소여 특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유발되므로써(McArthur & Baron, 1983; Zebrowitz, 1990), 인간 이해의 양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두 문화유형에서의 인간관의 차이에 따른 이상과 같은 세 차원의 강조점의 차이를 기본틀로 하여,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에서의 대인 평가 특성과 귀인 양상(조금호, 1993, 1996) 및 정서(조금호, 1997a)의 차이를 밝혀 내었는데,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기본틀에 따라 두 문화유형에서의 동기의 차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문화와 동기

이상에서 보았듯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사회 구성의 궁극적 단위로 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조화를 위한 상호의존적인 자기상의 추구가 문화적 명제로 부각된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율적이며 독특한 독립적인 존

표 1. 문화유형에 따라 중시되는 대인 평가 특성(1)·귀인 양상(2) 및 정서(3)의 차이

차 원	집단주의(관계중심적 인간관)	개인주의(개체중심적 인간관)
사회행위의 원동력과 목표	의존성 강조 1) 조화성 중시 2) 상황귀인 우세 3) 타인중심적 정서 편장	자율성 강조 1) 독특성 중시 2) 성향귀인 우세 3) 자기중심적 정서 편장
자기표현의 양식	자기억제 강조 1) 양보·협동 중시 2) 겸양 편향 우세 3) 정서 표출 억제	자기주장 강조 1) 적극성·경쟁 중시 2) 자기고양 편향 우세 3) 정서 표출 편장
행위의 변이가능성	가변성 강조 1) 노력 중시 2) 성취 결과의 노력귀인 우세 3) 부정 정서 수용 (자기비판은 자기개선의 조건)	안정성 강조 1) 능력 중시 2) 성취 결과의 능력귀인 우세 3) 부정 정서 배척 (정적 정서 추구)

재로서의 개인을 사회 구성의 단위로 보므로, 타인 및 집단과 분리된 개별적인 자기상의 추구가 문화적인 명제가 된다. 문화구성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이러한 문화적 자기관은 곧바로 개인의 심리적 경향으로 조형된다(Fiske et al., 1998; Gergen & Davis, 1985; Gergen & Gergen, 1988; Kitayama, Markus, & Liberman, 1995; Kitayama et al., 1997; Markus & Kitayama, 1994a, b 등).

문화구성주의는 사회 전반의 문화 체계와 개인의 심성 체계가 상호구성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Fiske et al., 1998; Kitayama et al., 1997). 즉, 사회는 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기관(개인을 상호 독립적인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보느냐 하는 견해)에 일치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산출해 내고, 여러 가지 사회화 압력을 통해 성원들이 이에 합치되는 자기관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 해당 문화의 문화적 자기관에 조율된 다양한 심리 내용과 경향을 갖추게 된 성원들은, 이러한 문화적 자기관에 부합되는 행동과 신념 체계를 통해, 해당 문화의 자기관에 합치되는 상황을 조성하므로써, 문화의 조형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구성주의에서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상황의 특징과 개인의 심리 과정 사이에는 밀접한 상응관계가 있다고 보므로써, 개인의 심리 기제의 문화적 근거를 밝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면, 전술한 바대로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문화유형에 따른 인간 이해 양식의 차이는 두 문화권에서의 인지(조공호, 1993, 1996) 및 정서 과정(조공호, 1997a)에서의 차이 뿐만 아니라(표 1 참조), 동기 과정에서의 차이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화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반복하는 일관되고 통합적인 행위 및 의미체계이다. 그리고 동기과정은 특정 목표를 지향하는 일관되고 통합적인 행위의 계열이다. 이렇게 보면, 문화와 동기는 일관되고 통합적인 목표지향성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Munro, 1997), 따라서 동기는 전적으로 문화에 따라 구성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Kashima, 1997).

이러한 사실을 D'Andrade(1992)는 “문화 모형(cultural models)은 세계를 명명하고 기술할 뿐만 아니라, (의식적 및 무의식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원망(願望, desires)을 유발 또는 포괄하기 때문에 동기적인 힘(motivational force)을 가진다”(p. 3)고 기술하고 있다. 즉, 문화 모형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 구조인 도식(schema)으로 전수되는데, 이러한 도식은 “대상이 아닌 과정으로서”(D'Andrade, 1992, p. 29) 목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를 촉발하며, 따라서 동기를 산출해 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원망과 목표획득 전략

체계인 동기는 개인이 성장한 문화와 사회 집단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내면화된 심리 과정이라는 것이다(Munro, 1997).

이러한 동기의 문화구속성은 전적으로 각 문화에서의 인간관과 자기관의 차이에서 연유한다(Kitayama et al., 1997; Markus & Kitayama, 1991a, b). 문화적 자기관은 개인을 동기화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타인에의 관련성이나 연계를 증진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동기화하고, 개인주의 문화에서의 독립적 자기관은 개인의 중요한 자기규정적인 내적 속성인 능력이나 개인적 특성 및 원망을 표출하는 행위를 하도록 동기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문화유형에 따라 특유한 또는 (상대적인 강도가 달라) 특징적인 동기적 경향을 갖추게 되거나(예: 독립적 자기관을 가진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기실현과 관련된 동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지만,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가진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집단에의 소속 동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Fiske et al., 1998; Geen, 1991, 1995a, b; Geen & Shea, 1997; Johnson, 1985; Markus & Kitayama, 1991a, b; Wilson, 1997 등) 또는 두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동기적 성향일지라도 그 추구 대상 또는 추구 목표가 다른 양상(예: 똑 같은 성취동기를 가지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피상적인 행동은 같지만,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성공이 기본적인 목적이고,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가족의 명예가 기본적인 목적일 수 있다: Fiske et al., 1998; Geen, 1995a; Maehr & Nicholls, 1980; Yang, 1986 등)을 띄게 되는 것이다.

집단주의 - 개인주의 문화유형과 동기

여기에서는 문화와 동기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에서 지향하는 동기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작업은 지금까지 해 온 대인인지와 정서의 문화차에 대한 작업(조공호, 1993, 1996, 1997a)과 마찬가지로, 두 문화권의 인간관과 자기관에서 연유

하는 세 차원의 강조점의 차이 - 사회행위의 원동력과 목표(의존성-자율성 강조), 자기표현의 양식(자기억제-자기주장 강조), 행위의 변이가능성(가변성-안정성 강조) - 를 기본틀로 하여, 각 문화권에 특유한 (또는 강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동기와 두 문화권에 공통적이지만 그 추구대상이나 목적에 차이가 있는 동기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의존성 - 자율성 강조

사람을 상황의존적인 관계 속의 존재로 파악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관계 속에 내포된 역할과 의무를 행위의 원동력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개인 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타인에의 관심과 배려 및 조화의 추구가 주의의 초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상황유리적인 독립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독립적인 개인의 속성(욕구·목표·성향 등)을 행위의 원동력으로 본다.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개별적인 독특성의 추구가 주의의 초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두 문화유형에서의 강조점에 따른 주의의 초점의 차이는 추구하고 지향하는 목표의 차이를 유발하게 되고, 그 결과 동기의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타인에의 관심과 배려를 축으로 하는 동기를 중시하고, 그 결과 집단지향적인 성취와 외집단과 내집단의 대비를 강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 목표를 축으로 하는 동기를 강조하고, 그 결과 개인지향적 성취와 개인 간의 경쟁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타인지향동기-개인지향동기 Murray(1938)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욕구(need) 또는 동기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Bakan, 1966; Geen, 1995a; Hogan, 1983; Markus & Kitayama, 1991a, b; Wiggins, 1992 등). 그 하나는 “개인을 타인과 밀접하게 이끌고, 개인과 사회 환경 사이의 공동체감을 촉진시키는 행동을 산출하는 동기”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을 직접적인 공동체로부터 분리하고, 사회 환경 내의 타인과는

독립적으로 또는 타인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개인적 이득을 확보하려는 행동과 관련된 동기”(Geen, 1995a, p. 249)이다. Bakan(1966)은 이 두 종류의 동기는 인간 실존의 두 가지 근본적인 양식(two fundamental modalities of human existence)을 반영하는 것이라 보고, 전자를 “각 개인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더 큰 유기체에 개인이 참여하는” 일체성(communion)의 동기라 부르고, 후자를 “개인으로서의 유기체의 존재”(p. 15)에 해당하는 주체성(agency)의 동기라 명명하고 있다. Hogan(1983)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전개하고 있는데, 일체성과 연결되는 동기는 친화*(affiliation), 굴종*(abasement), 비난회피*(defendance), 존경*(deference), 양육·보호*(nurturance), 수혜·의존*(succorance), 친밀(intimacy), 애착(attachment), 사회적 용인(approval), 공감(empathy), 이타성(altruism)의 동기들이고, 주체성과 연결되는 동기는 성취*(achievement), 자율*(autonomy), 극복*(counteraction), 지배*(dominance), 자기과시*(exhibition), 거부*(rejection), 자기주장(assertiveness), 독립(independance), 권력(power)의 동기들이다.⁸⁾

Wiggins(1992)는 이러한 두 종류의 동기는 사회성과 개인주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에 상응한다고 보고 있다. 즉, 일체성동기들은 개인보다 타인이나 집단에의 관심을 우선시하며, 집단에의 소속을 지향하는 동기라는 점에서 집단주의 문화에서 중시하는 동기들이고, 주체성동기들은 개인을 타인이나 집단보다 우선시하며,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추구하는 동기라는 점에서 개인주의 문화에서 중시하는 동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타인지향의 일체성동기와 개인지향의 주체성동기가 각각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동기가 되는 까닭은 이 두 동기가 각각 두 문화유형에서의 문화적 명제(cultural imperatives)와 일치하기 때문이다(Markus & Kitayama, 1991a, b).

Markus와 Kitayama(1991a)에 따르면, 집단주의 사

회의 문화적 명제는 연결성, 사회통합, 대인간 조화의 추구이기 때문에, 존경, 모방, 친화, 양육·보호, 수혜·의존, 비난회피, 굴종 등의 동기들은 이 사회의 성원들에게 전형적으로 긍정적이고도 바람직한 것으로 경험되며, 따라서 집단주의 사회의 성원들은 강한 타인 및 집단지향의 동기들을 갖게 된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의 문화적 명제는 독립성과 개별성의 유지에 있으므로, 이러한 타인 및 집단지향의 동기를 강하게 가지게 되면, 이는 연약함이나 문제 성격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따라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지향의 동기를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경험하게 되고, 결국 강한 개인지향의 동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Edwards 개인적 선호 척도(Edwards Personal Preference Schedule: Edwards, 1959)에 대한 반응에서 중국 학생들(Yang, 1986)은 미국 학생들(Edwards, 1959)보다 사회적 성취, 질서, 수혜·의존, 굴종, 양육·보호, 인내의 척도에서 훨씬 강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보다 자기과시, 지배, 변화, 성, 공격의 척도에서 아주 강한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도 학생(Fuster, 1962)과 미국 학생의 비교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Yang, 1986, p. 110의 표 4.1 참조).

집단주의 사회의 문화적 명제와 합치되는 이러한 타인 및 집단지향 동기를 Geen(1991, 1995a, b; Geen & Shea, 1997)은 사회포괄욕구(need for social inclusion)라 부르고 있다. 그는 이 포괄욕구가 타인 존재에 의해 유발되는 평가 우려, 사회 불안, 인상관리 행동, 사회촉진(social facilitation)과 사회태만(social loafing) 등 제반 사회행동의 근거라고 보아, 이를 여러 사회적 동기의 배경이 되는 근본동기(meta-motivation)라 보고 있다.⁹⁾ Baumeister와 Leary(1995)는 이를 소

9) 여기서 Wiggins(1992)가 말하는 사회성(sociality)은 사회에 대한 관심 또는 지향 등의 의미로, 본고의 맥락에서의 집단주의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 Geen(1991, 1995a, b; Geen & Shea, 1997)은 이러한 사회포괄욕구를 근본동기로 보는 까닭을 Greenberg, Pyszczynski와 Solomon(1986; Solomon, Greenberg, & Pyszczynski, 1991)의 공포관리이론(terror management

8) * 표시는 Murray(1938)의 욕구 목록에 들어 있는 동기들이고, 나머지는 Geen(1995a, p.249)이 제시하고 있는 동기들이다. 이중 친화, 성취, 지배 동기는 두 목록에 중복되고 있다.

속속구(need to belong)라 부르고 있는데, 그들도 이를 인간의 보편적인 근본동기라 본다. Baumeister와 Leary (1995)에 따르면, 소속속구는 강하고 안정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동기로서, 이는 타인의 이익과 성과에 대한 상호 관심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상호 의존관계를 추구하는 행동을 유발하므로써, 타인에의 배려 행동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Brewer와 Gardner (1996)는 이러한 소속속구에서 나오는 타인에의 배려는 개인의 정체감을 개인적 자기(personal self)로부터 관계적 자기(relational self)나 집단적 자기(collective self)로 수준 이동하게 하는 배경이라 본다. 앞에서 보았듯이 집단주의 사회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특징인 사회이다.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Brewer와 Gardner (1996)가 말하는 관계적 자기나 집단적 자기로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소속속구가 바로 이러한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갖게 하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포괄욕구나 소속속구는 Baumeister와 Leary(1995)가 주장하듯이 어느 문화권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동기이기는 하지만,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보다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더 두드러지는 동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theory)에서 찾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로 대표되는 인간의 문화는 개인의 취약성(vulnerability)과 죽음의 운명(personal mortality)에 직면하는 완충장치(buffer)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는 각자가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 배경 또는 문화적 연극(cultural drama)을 제공하는데, 이의 성공적 수행은 사회에의 통합과 사회적 지원의 확보, 사회적 수용, 자존감의 유지 등을 통해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개인이 경험하는 실존적 공포(죽음의 공포와 죽음 후의 無化 공포: Batson과 Ventis, 1982는 이를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도 심각한 심리적 문제라고 보았는데, Schumaker, 1997는 이러한 실존적 공포가 보편적인 종교동기의 근거라 주장한다)를 제거해 준다는 것이다. 반면 문화적 연극에 따른 역할 수행의 실패는 사회로부터의 배척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실존적 공포에 대한 사회적 완충장치가 상실되게 만든다. 따라서 사람은 실존적 공포를 관리하기 위해 문화적 연극 속에서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되고, 이것이 사회포괄욕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포관리이론은 죽음의 공포를 부각시키면, 자기 문화의 세계관과의 동일시 및 이의 옹호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예: Arndt, Greenberg, Solomon, Pyszczynski, & Simon, 1997; Greenberg, Pyszczynski, Solomon, Rosenblatt, Veeder, Kirkland, & Lyon, 1990)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이렇게 집단주의 사회에서 타인 및 집단지향동기가 특징적이라면, 이 문화권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입장은 개인주의 문화권과는 다를 것이다(Fiske et al., 1998; Pittman, 1998; Pittman & Heller, 1987).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대인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대인관계를 자기이익 최대화의 도구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말하자면, 집단주의 사회에서 특징적인 대인관계는 공동체적 관계(communal relationship)이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 특징적인 대인관계는 교환관계(exchange relationship)가 된다는 것이다(Clark & Mills, 1979, 1993). 따라서 같은 대인관계에 대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보다 더 진실되고 강제적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 더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Deci & Ryan, 1990). 이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에 따라 대인관계를 맺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외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에 따라 대인관계를 맺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¹¹⁾(Fiske et al., 1998; Pittman, 1998; Pittman & Heller, 1987).

여기서 한 가지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은 타인과의 정적이고 감정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려는 친화 동기(Atkinson, Heyns, & Veroff, 1954)는 집단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 사회에서보다 더 강할 것 같은데, 실제 연구 결과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다(한규석, 1995; Bond, 1986; Yang, 1986 등). 이의 원인은 Boyatzis(1973)와 McAdams(1980, 1982)가 제시한 대로 종래까지는 친화동기를 너무 거절불안(rejection anxiety: 대인관계를 확립·유지·회복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는지 점검하는 동기)에

11) 대인관계를 이러한 내·외동기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본래 흥미(내적동기)를 가지고 있던 활동의 수행에 대해 외적 보상을 해주면, 이에 대한 흥미가 감소된다는 외적 보상에 의한 내적 동기의 감소 현상(Lepper, Greene, & Nisbett, 1975)이 대인관계 장면에서도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Pittman, Boggino, & Main, 1992 참조)에서 확인되고 있다. 즉, 대인관계에서의 보상은 이후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키며(Pittman, 1982), 대인관계에서 보상같은 외적 특징이 강조될수록 관계의 밀접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Rempel, Holmes, & Zanna, 1985; Seligman, Fazio, & Zanna, 1980)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기울어져서 보고, 이의 정적 측면인 친밀동기(intimacy motive: 타인과 따뜻하고 밀접하며 소통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자발성의 동기)는 무시했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¹²⁾(Geen, 1995a; Reeve, 1992). 즉, 친화동기는 친밀동기와 거절불안의 복합 동기인데, 지금까지는 거절불안을 중심으로 친화동기를 측정해 왔다는 것이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조화 추구가 특징이므로 거절불안보다는 친밀동기가 더 강하지만,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독특성과 인기 추구가 특징이므로 거절불안이 더 크다는 결과가 있다¹³⁾(Wheeler, Reis, & Bond, 1989). 한규석(1995)은 이러한 설명 이외에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새로운 관계의 구축보다는 기존 관계의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므로, 내집단 성원에게는 친화동기가 강하지만 외집단 성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집단주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친화동기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친화동기와 대인매력 사이에 역상관이 검출되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친화동기와 대인매력(타인이 지각한 사회계측 지위, 자신이 지각한 사회계측 지위, 자기평가 등) 사이에 유의미한 정상관이 검출되고 있다(Chang, 1980; Bond & Hwang, 1986)는 사실은 집단주의 사회에서 실제로 친화동기가 사회행동을 촉발하는 강력한 근거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하겠다.

성취목표의 차이 어떤 탁월성의 표준에 비추어 보람있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인 성취동기(McClelland, Atkinson, Clark, & Lowell, 1953; Reeve, 1992)는 가장 많이 연구가 이루어진 동기이다(Hilgard, 1987; Ho, 1986; Markus & Kitayama, 1991a, b; Yang, 1986 등). 이 성취동기는 보편적인 동기이어서 미국과 같은 개인주의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의 집단주의 사회에서

도 상대적으로 강한 동기임이 확인되고 있다(Ho, 1986; McClelland, 1963; Yang, 1986 등). 한 예로, Blumenthal(1977)은 중국 어린이들의 동화 분석에서 성취 관련 주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이타성과 개인적·사회적 책임감 관련 주제가 이어짐을 밝혀 내어, 성취동기가 범문화적인 보편성을 가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아동용 교과서에서도 성취 관련 주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안신호·김진·이상희, 1991).

성취동기가 이렇게 범문화적인 보편 동기이기는 하지만, 그 성취 목표나 대상은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한규석, 1991a, 1995; Bond, 1986; DeVos, 1973; Ho, 1986; Kubany, Gallimore, & Buell, 1970; Maehr, 1974; Maehr & Nicholls, 1980; Markus & Kitayama, 1991a, b; Yang, 1982, 1986; Yang & Liang, 1973 등).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지향 성취동기(socially oriented achievement motive)의 형태를 띄어, 중요한 타인(특히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배경이 되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지향 성취동기(individually oriented achievement motive)의 형태를 띄어, 성취 그 자체를 위한 노력의 배경이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성취의 목적은 “집단”에 집중되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성취의 목적은 “나”에 집중되는 것이다(Maehr, 1974; Maehr & Nicholls, 1980).

문화유형에 따른 이러한 성취 목표의 차이는 두 문화권에서의 사회화과정과 자존감의 근거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다(Yang, 1982, 1986; Yang & Liang, 1973).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회화과정에서 의존성을 강조하게 되고, 관계에 터해서 정체성이 규정될 뿐만 아니라(Triandis, 1989, 1990),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여 타인의 인정을 받는 데에서 느끼는 좋은 감정인 사회적 존중감(social esteem; Geen, 1995a)이 자부심의 근원이 된다(Fiske et al., 1998; Heine & Lehman, 1995; Kitayama, Markus, & Kurokawa, 1994;

12) 차재호·정지원(1990)은 affiliative need를 친애욕구라 부르고 있는데 반해, 한규석(1995)은 이를 친화동기, 그리고 intimacy need를 친애동기라 부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용어상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친애란 번역어를 피하고, affiliation은 친화, intimacy는 친밀이라고 부른다.

13) TAT에 대한 반응에서 중국인은 미국인보다 동료로부터의 배척 또는 용인에의 관심이 더 적게 나오고 있다(Watrous & Hsu, 1963; Yang, 1986)는 결과도 이러한 사실을 지지해주고 있다.

Kitayama et al., 1995, 1997). 따라서 이 문화권에서는 성취관련행동, 탁월성의 표준 및 성과의 평가가 가족, 집단 또는 사회 전체와 같은 중요한 타인에 의해 규정되므로, 성취의 목표가 이들에 의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화과정에서 독립성을 강조하게 되고, 개인의 성취(소유물, 경험, 업적, 능력 등)에 의해 정체성이 규정될 뿐만 아니라(Triandis, 1989, 1990), 스스로가 이상적 수준에 근접한 성취를 해서 느끼는 좋은 감정인 자기 존중감(self-esteem; Geen, 1995a)이 자부심의 근원이 된다(Fiske et al., 1998; Heine & Lehman, 1995; Kitayama et al., 1994, 1995, 1997). 따라서 이 문화권에서는 성취관련행동, 탁월성의 표준 및 성과의 평가가 행위자 자신에 의해 규정되므로, 성취의 목표가 스스로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¹⁴⁾

문화유형에 따른 이러한 성취 목표의 차이는 그대로 이 두 사회에서의 작업동기와 작업관련 행동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성취관련행동과 목표가 중요한 타인에 의해 규

정되므로, 직업 장면에서 지도자나 동료 또는 회사에 대한 개인적 애착이나 의무감이 작업동기(work motivation)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 성취나 이익의 획득이 작업동기의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다(조공호, 1997b; Bond & Hwang, 1986; Hofstede, 1991; Markus & Kitayama, 1991a, b). 이러한 사실은 일본인이거나 중국인은 미국인이나 영국인들과는 달리, 과제중심적 지도자보다는 규정된 과업보다 더 많이 요구하지만 개인적 배려도 많이 해 주는 가부장적 지도자를 더 선호하며(Bond & Hwang, 1986; Hayashi, 1988; Misumi, 1985; Redding & Wong, 1986), 이러한 지도자 밑에서 비록 직업만족도는 낮을지라도 작업동기도 높고 작업수행 성과도 좋았다(Dore, 1973; Kao & Ng, 1997)는 결과들에서 입증되고 있다.

문화유형에 따른 이러한 성취동기와 작업동기의 근원의 차이는 집단 상황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 성과가 개인 혼자 작업할 때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거나(사회촉진) 낮게 나타나는(사회태만) 현상의 문화차를 유발하게 된다. 서구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아주 쉬운 작업의 경우에는 사회촉진 현상이 관찰되지만, 작업곤란도가 높은 경우에는 사회태만 현상이 관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Geen, 1991, 1995a, b; Geen & Shea, 1997). 그러나 손뼉치기나 고함지르기 등 아주 사소하고 쉬운 과제에서도 사회태만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드러나므로써¹⁵⁾(Latané, Williams, & Harkins, 1979 등), 사회태만은 어려운 작업에서나 아주 사소한 과제에서나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일반적인 현상임이 밝혀지고 있다(한규석, 1995; Baron & Byrne, 1997; Karau & Williams, 1993; Taylor, Peplau, & Sears, 1994).

이러한 사회태만 현상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거

14) Yang(1982, 1986; Yang & Liang, 1973)이 성취동기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이론을 제시한 배경에는 중국인과 미국인에게서 측정된 성취동기의 비교 결과의 비밀관성이 놓여 있다. 즉, TAT 같은 투사검사로 성취동기를 측정한 연구들에서는 미국인의 성취동기가 중국인의 그것보다 높게 검출된 반면, C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나 EPPS 같은 자기보고검사로 성취동기를 측정한 연구들에서는 중국인의 성취동기가 미국인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검출되었던 것이다(Yang, 1986, pp. 108-115 참조). Yang은 성취의 목표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개인지향 성취동기(개인주의 사회의 특징적 성취동기)는 기능적 자동화(functional autonomy)가 이루어져서 내면화되었으므로 무의식화 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는 TAT 같은 투사검사에서 잘 검출될 것이라고 본다. 이에 비해 성취의 목표가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사회지향 성취동기(집단주의 사회의 특징적 성취동기)는 기능적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타인, 가족, 집단 및 사회의 영향에 의식적으로 민감하게 되고, 따라서 이는 자기보고검사에 의해 효율적으로 측정될 것이라고 본다. Yu(1974)는 중국인의 가족주의와 효(孝)는 TAT로 측정한 성취동기와는 아무런 상관을 보이지 않음에 비해, 자기보고검사로 측정한 성취동기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임을 발견하여, 위의 추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성취동기가 과연 기능적 자동화 여부에 따른 의식수준의 차이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15) 사실 사회태만 현상은 이렇게 사소하고 쉬운 과제에서 발견된 것이다. 19세기 말엽 프랑스의 공학자인 Ringelmann이 학생들에게 줄다리기를 하게 했을 때, 개별적으로는 평균 85kg의 힘으로 당겼으나, 7명이 동시에 당길 때는 일인당 평균 65kg, 14명이 동시에 당길 때는 61kg의 힘으로 당기는 것을 발견한 데에서 사회태만 현상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Kravitz & Martin, 1986).

의 나타나지 않고(Matsui, Kakuyama, & Onglatco, 1987; Shirakashi, 1985; Yamagishi, 1988),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사회축진 현상이 나타남이 밝혀지고 있다(Earley, 1989, 1993, 1994; Gabrenya, Wang, & Latané, 1985). Karau와 Williams(1993)는 사회태만에 관한 78개의 연구에 대한 사후종합분석(meta-analysis)에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태만 현상이 아주 강하지만(평균 기증 효과량: .46),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평균 기증 효과량: .19)을 보고하므로써, 사회태만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 문화의 함수로서 달라지는 현상임을 밝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성취동기와 작업동기가 타인에 대한 관심과 주의 등의 사회적 지향에서 나오므로, 집단에서 작업을 할 때 이러한 타인 지향이 동기 유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Baron & Byrne, 1997; Geen & Shea, 1997; Karau & Williams, 1993). 인도, 태국, 대만, 일본, 중국 등 집단주의 사회에서도 소리지르기와 손뼉치기 같은 아주 사소한 작업에서는 사회태만 현상이 나타난다(Gabrenya, Latané, & Wang, 1983; Latané, Williams, & Harkins, 1979)는 사실이나, 이스라엘과 중국 등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유사한 내집단 성원과의 공동 작업에서는 사회축진을 보이지만, 외집단 성원과의 공동 작업에서는 약하지만 사회태만 현상을 보인다(개인주의 사회인 미국에서는 두 경우 모두 사회태만을 보임; Earley, 1993, 1994)는 사실들은 이러한 해석을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과제가 중요하거나 집단 성원들이 중요할수록 타인지향 경향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성취동기와 작업동기가 스스로에게서 주어지므로, 자기의 특출성이 드러나지 않는 집단 장면에서는 이러한 동기들이 유발되기 힘들기 때문에, 사회태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도 집단 작업을 할 때, 개인의 작업량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 익명성의 장막을 걷어버리므로써 개인의 특출성을 부각시키면, 사회태만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들(Geen, 1991, 1995a, b 참조)은 이러한 해석을 지지해 주고 있다.

사회비교 대상의 차이 사회비교(social comparison)는 스스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유사한 타인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자기를 평가하는 과정으로(Festinger, 1954), 이는 유능감(competence; White, 1959) 또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 Bandura, 1997)의 추구에서 핵심적인 과정이다. 유능감이나 효능감은 모두 자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서 연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Pittman, 1998).

이러한 사회비교의 동기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다(Sedikides, 1993). 그러나 그 참조 기준이나 비교 대상은 문화권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Carr & MacLachlan, 1997).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외 집단과의 경쟁이 기본적인 경쟁의 양상이므로(Hsu, 1983; Triandis, 1989) 비교 대상은 주로 외집단 또는 그 성원이 되며(Carr & MacLachlan, 1997), 비교의 기준은 중요한 타인 또는 내집단이 설정하는 규범(Geen, 1995a)이 될 것이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 간 경쟁이 기본적인 경쟁의 양상이므로(Hsu, 1983; Triandis, 1989) 비교 대상은 주로 자기와 유사한 타인이 되며(Carr & MacLachlan, 1997), 비교의 기준은 스스로의 자율적이고 내면화된 가치체계(Geen, 1995a)가 될 것이다.

또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단점 보완을 통한 자기개선이 긍정적 자기인식의 통로가 되므로(조공호, 1996, 1997a; Diener & Diener, 1995; Diener & Larsen, 1993; Heine & Lehman, 1995; 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in press; Kitayama & Markus, 1994, 1995; Kitayama et al., 1997; Markus & Kitayama, 1994a), 자기의 단점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상향적 사회비교(upward social comparison)가 비교의 주 양식이 될 것이다(Carr & MacLachlan, 1997; Geen, 1995a).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독특성 인식을 통한 긍정적 자기상의 추구가 문화적 명제이므로(조공호, 1996, 1997a; Diener & Diener, 1995; Diener & Larsen, 1993; Heine & Lehman, 1995; Heine et al., in press; Kitayama & Markus, 1994,

1995; Kitayama et al., 1997; Markus & Kitayama, 1994a), 긍정적 자기평가를 통해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사회비교를 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하향적 사회비교(downward social comparison)가 비교의 주 양식이 될 것이다(Carr & MacLachlan, 1997; Geen, 1995a). 이러한 사실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독특성을 과대 평가하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이를 과소 평가한다는 허구적 독특성(false uniqueness) 지각 경향의 문화차에 관한 연구(Brown, 1986; Lewinsohn, Mischel, Chaplin, & Barton, 1980; Markus & Kitayama, 1991b; Myers, 1987) 및 개인주의자들은 타인보다 자기 자신을 더 특출하고 중요한 주의 및 숙고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만, 집단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특출하고 중요한 주의 및 숙고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asymmetry in similarity judgment)에 관한 연구(Kitayama, Markus, Tummala, Kurokawa, & Kato, 1990)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자기억제-자기표현 강조

집단의 통합과 조화를 강조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 원망이나 목표의 추구 및 내적 감정의 표현은 집단 내에 갈등을 야기하고 조화를 해치는 원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집단 목표를 개인 목표보다 상위에 두고, 개인적 원망이나 욕구를 억제할 것을 강조하게 되며, 그 결과 양보와 협동, 겸양 및 자아중심적 정서 표현의 억제를 중시하게 된다. 이에 비해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 원망이나 욕구의 추구 및 내적 감정의 표현은 자율적 인간의 당연한 권리라고 본다. 따라서 개인 목표를 집단 목표보다 우선시키고, 적극적인 자기주장을 강조하게 되며, 그 결과 적극성과 경쟁, 자기고양 및 솔직한 정서 표현을 중시하게 된다.

문화유형에 따른 이러한 자기표현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는 사회화과정에 그대로 반영된다.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회화과정에서 개인 내적 욕구 및 충동의 통제와 집단 규범의 준수 및 내면화를 강조하는

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 내적 욕구와 충동을 자연스럽게 발휘하기 위한 외부 환경의 통제와 개인적인 가치체계의 고수를 강조하게 된다.

내적 욕구 통제-환경 통제 이상에서 본 대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충동의 억제와 집단지향적인 성취를 강조하는 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자기주장을 적극 권장한다(Triandis, 1990).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로부터 통제(control)의 의미와 자존심의 근거에 대한 문화 간 차이가 유발된다(Markus & Kitayama, 1991a, b).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타인에의 민감성, 상황의 필요와 요구에의 적응 및 자기억제와 조절의 노력을 통해 개인적 역량이 체험되므로, 통제란 결국 상호의존성과 연결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적 욕구와 목표 및 사적 감정 등 내적 속성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기 억제와 상황 적응성 및 대인관계에서의 조화의 유지가 자존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내적 욕구, 권리 및 능력의 표출과 사회적 압력에 대한 저항의 노력을 통해 개인적 역량이 체험되므로, 통제란 결국 개별성과 자율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회 상황이나 외적 제약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는 독특성과 수월성, 자기 표현의 유능성 및 외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자존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Rothbaum, Weisz와 Snyder(1982)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구에서 제시된 통제에 관한 이론들(예: Bandura, 1977, 1997; Seligman, 1975; White, 1959 등)은 모두 통제를 “환경 세계를 개인의 욕구에 합치되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p. 8)이라 보아 왔다. 이러한 이론들에서는 “개인의 욕구에 부합되도록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Rothbaum et al., 1982. p. 8)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능동성, 도전 및 저항과 극복 등 외부지향적 행동(outward behaviors)을 중시하고, 수동성, 후퇴 및 순종 등 내부지향적 행동(inward behaviors)을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나오는 병리적 현상이라 간주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Rothbaum 등(1982)은 이러한 내부지향적 행동은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자기의 제한된 능력과 온 같은 외적 제약의 작용가능성을 인정하고, 동료나 집단에의 의존과 연합을 형성하므로써, 무모한 개인적인 도전으로부터 오는 실패와 그로 인한 실망감과 무기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게 하는 긍정적 기능을 갖는 적응 유형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내부지향적 행동들은 “자기를 외부 세계에 합치되도록 만들고 현실과 타협하려는”(Rothbaum et al., 1982. p. 8)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라 보아, 이를 전자의 일차 통제(primary control)와 대비하여 이차통제(secondary control)라 불렀다. 즉, 일차통제는 타인, 대상 및 환경 조건 등 외부의 현실을 자기에게 합치하도록 영향을 끼치므로써 보상을 얻으려 하지만, 이차통제는 자기의 기대, 목표, 원망 등 자기 내부의 속성을 외부 현실에 맞게 변화시키므로써 보상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Weisz, Rothbaum, & Blackburn, 1984, p. 956 표 1 참조).

Rothbaum 등(1982)은 실제로 사람들이 일차통제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차통제도 추구한다고 보았다. 즉 “사람들은 때때로 개인주의와 개인적 자율성을 제한하고, 타인, 대상 또는 환경세계의 조건들과의 연합 또는 합치를 높이는 행위를 통해서 기존 현실에 적응하려는 이차통제를 추구”(Weisz et al., 1984, p. 956)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일차 통제와 이차통제의 정합이 최적의 적응”(Rothbaum et al., 1982. p. 8)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차 통제와 이차통제의 비율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Weisz 등(1984)은 일본인들은 미국인보다 외적 통제형¹⁶⁾이 많고, 타인 및 집단과의 연합을 선호하며, 아동양육과 사회화 양식, 종교와 철학, 직업 및 심리치료의 장면에서도 이차통제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이차통제가 선호되고 실제로 이러한 통제유형이 많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일차통제가 선호되고 실제로 이러한 통제유형이 많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집단주의 사회에서 이차통제가 보편적인 통제양식임은 싱가포르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밝혀졌으며(Chang, Chua, & Toh, 1997), 최상진(1995)은 이러한 이차통제가 한국인의 통제유형의 특징이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중국인에게는 외통제형이 내통제형보다 많으며, 외적 통제의 신념이 내적 통제의 신념보다 강하다는 결과들(Bond & Hwang, 1986; Cheung, 1986; Liu, 1986; Yang, 1986 등)도 이차통제가 집단주의 문화권의 특징임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인이나 남미계 미국인(집단주의자)들은 내적인 개인적 조건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력을 높게 자각하는 반면, 유럽계 미국인(개인주의자)들은 외부 사태에 대한 통제력을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Morling & Fiske, 1998)는 집단주의자들에게 통제는 내부지향적이지만, 개인주의자들에게 통제는 외부지향적임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따라서 개인주의 사회에서 통제력 지각의 핵심은 스스로의 자유 선택의 여부에 있게 되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에게 글자 짜맞추기 과제를 자유선택하거나 어머니가 지정해 주고 수행하게 했을 때, 미국의 아동들은 자유선택조건의 수행율이 어머니 지정조건의 수행율보다 높았으나, 중국과 일본의 아동들은 어머니 지정조건의 수행율이 자유선택 조건보다 훨씬 높았다(Sethi & Lepper, 1998)는 결과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 결과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아동기부터 중요한 타인인 어머니도 개인적 통제력을 저해하는 존재로 받아들여, 자유선택이 통제력 지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중요한 타인(어머니)이 결코 개인의 통제력을 저해하는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중요한 타인과의 연합 형성은 이차통제를 증진시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집단주의 사회에서 어머니와의 연합 형성이 아동의 자기통제를 증진시키고, 과제에의 몰

16) Rotter(1966)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나 처벌, 또는 자기에게 벌어지는 제반 사건이나 결과들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운, 환경, 타인 등 외적 조건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내통제(internal locus of control) 유형과 외통제(external locus of control)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I-E Scale)를 제작하였다. 여기서 내통제형은 일차통제가 특징적인 통제유형인 사람이고, 외통제형은 이차통제가 특징적인 통제유형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입을 유도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정영숙, 1994, 1995, 1996)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통제력의 근원을 타인이나 외적 조건과 분리된 개인에게서 찾으므로, 자기의 통제력을 사실보다 과장하여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도박이나 주사위 던지기 또는 복권 당첨과 같은 순전히 운에 의해 결정되는 사건도 자신이 선택했다든지 하여 스스로가 관련되어 있으면, 자기가 이를 통제하고 있다고 여기는 통제력 착각(illusion of control)의 경향이 강한 것이다(Crocker, 1982; Langer, 1975; Langer & Roth, 1975; Taylor & Brown, 1988). 또한 이들은 비슷한 타인들보다 자기 자신이 정적 사건은 더 많이 경험하고, 부정적 사건은 더 적게 경험할 것이라고 믿거나, 자기의 미래를 타인의 미래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unrealistic optimism)의 경향도 강하다(Brown, 1986; Taylor & Brown, 1986; Weinstein, 1980). 개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정적 착각(positive illusion)은 정신건강의 지표이며¹⁷⁾(Taylor & Brown, 1988, 1994a, b), 정적 착각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행복감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Brown & Taylor, 1986; Myers & Diener, 1995; Taylor & Brown, 1988, 1994a, b)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력 착각이나 비현실적 낙관주의의 경향은 통제력의 근거를 개인 내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일본인들은 캐나다인들과는 달리 비현실적 낙관주의의 경향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

는 것이다(Heine & Lehman, 1995). 따라서 정적 착각에 의한 통제력 과대 지각이 문화적인 요구로 작용하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이것이 적응 수준을 높여,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도 잘 대처하게 하고 또 행복감을 유발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정적 착각이 적응 수준이나 자연재해에의 대처 및 행복감의 증진에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역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Diener & Diener, 1995; Heine & Lehman, 1995; Kitayama et al., 1994; Kitayama, Palm, Masuda, & Carroll, 1998).

여기서 한 가지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은,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보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효능감(efficacy)이 중요하지 않거나 경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다. 통제감의 주축인 효능감 신념의 기능적 가치는 문화보편적인 것이다. 하지만 “보편성이 탈 문화적 관점(culture-free perspective)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Bandura, 1997, p. 32). 자기가 바라는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에의 신념은 어떤 문화권에서나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효능감 신념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이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 쓰이는지, 그리고 특정 문화 환경 내에서 이것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문화적 가치와 실재가 결정하는 것이다”(Bandura, 1997, p. 32). 따라서 효능감의 신념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회에서 모두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데, 다만 “개인주의자들은 스스로가 사태를 관리할 수 있을 때 가장 효능감을 느끼고 생산적이지만, 집단주의자들은 타인들과 함께 사태를 관리할 때 가장 효능감을 느끼고 생산적일 뿐인 것이다”(Bandura, 1997, p. 32). 집단 작업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태만을 가져오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촉진을 가져온다(Earley, 1989, 1993, 1994; Gabrenya et al., 1985; Geen & Shea, 1997; Karau & Williams, 1993)는 사실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효능감(personal efficacy)이 중요하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집단효능감(group efficacy)이 중요하며(Bandura, 1997), 이들은 각각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회의 일차통제와 이차통제의 주축이 되는

17)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논쟁이 진행 중이다. 전통적으로 정확한 자기 인식이 정신건강의 기초라는 고전적 입장(Jahoda, 1958; Jourard & Landsman, 1980)이 견지되어 왔으나, Taylor와 Brown(1988)이 정적 착각은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 특징이므로 정신건강의 촉진제가 된다는 이론을 제시하므로써, 이러한 고전적 입장은 도전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Taylor와 Brown(1988)의 입장에 대해 Shedler, Mayman과 Manis(1993)가 고전적 입장에서 반박을 하고, 이어서 Colvin과 Block(1994; Block & Colvin, 1994)이 이에 가세하여, Taylor와 Brown(1994a, b)과 논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어떤 입장에 서든, 본고의 관점에서 보면, 통제력의 근거를 개인 내에 두고 있고, 이것이 정신건강의 조건이라고 본다는 점은 모두 마찬가지인 것이다.

신념체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동조 행동의 차이 선분의 크기 비교와 같은 정답이 아주 분명한 장면에서도 개인의 견해와 집단의 견해가 서로 다를 때 집단의 의견에 따라간다는 Asch (1951)의 시원적인 연구 이래, 동조(conformity)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이것이 집단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이고도 근본적인 현상(Friend, Rafferty, & Bramel, 1990)이라는 전제 아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비교적 최근까지 이의 문화차는 거의 무시되고 있었다(Moscovici, 1985). 그러나 집단규범에의 동조가 사회·문화적 진화를 촉진시키는 적응적 가치를 가지는 행동임이 밝혀지고, 또한 동조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고¹⁸⁾ 자율성만을 강조하는 서구 개인주의 문화권의 독립적 자기관의 문제점이 드러나서, 자기와 집단에 대한 대안적 견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Cialdini & Trost, 1998; Markus & Kitayama, 1994a; Triandis, 1994), 문화유형에 따른 동조 행동의 차이의 문제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예: Bond, 1988; Bond & Smith, 1996; Mann, 1988;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등).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의존성 및 집단의 통합과 조화를 강조하므로, 타인에게 단결심·공손함·배려성·소속감 등을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내집단과 동일시된 자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조를 집단 소속과 자기 확장의 수단으로 보아 중시하게 된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독립성·자립을 강조

하므로, 타인에게 스스로의 독특성을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 사회의 사람들은 타인과 구획되고 분리된 개체로서의 자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조를 비독립성이나 비자율성의 표출로 보거나, 자기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도 한다(Bond & Smith, 1996; Bond & Hwang, 1986; Chung, 1994; Markus & Kitayama, 1991a, b, 1994a; Triandis, 1989, 1990; Valentine, 1997).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집단주의자들의 동조량이 개인주의자들에게서 얻어진 동조량보다 크다(한규석, 1991b; Bond, 1998; Mann, 1988; Triandis et al., 1988 등). 최근에 Bond와 Smith(1996)는 지금까지 17개국에서 이루어진 133개의 동조 행동에 관한 실험 연구들을 사후종합분석해 본 결과, 각국의 개인주의 수준과 동조량 간에 강력한 부정회귀계수(β)를 보임을 밝혀내었다. 즉, Hofstede(1980, 1983, 1991), Schwartz (1994) 및 Trompenaars(1993)의 개인주의척도에 의한 각국의 개인주의 점수와 동조량 간에 강한 역상관이 있음이 밝혀져, 집단주의 사회일수록 동조행동이 많고, 개인주의 사회일수록 동조 행동이 적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동조 행동이 개인주의 사회의 그것보다 많은 것은 집단주의 사회일수록 개인주의 사회보다 외통체의 성격유형이 많다는 사실(Bond, 1986; Weisz et al., 1984)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데, 외통체형일수록 동조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Lefcourt, 1966; Petri, 1996).

그러나 집단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학생들은 같은 지위의 동료들 간에는 동조가 크지만(Ho, 1979; Meade & Barnard, 1973, 1975), 낯선 사람에의 동조는 아주 작다(Bond & Hwang, 1986). 같은 경향이 일본에서도 밝혀지고 있는데, 일본의 학생들은 동조실험 장면에서 다수가 친구들로 구성되었을 때에는 동조를 많이 하지만, 낯선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때에는 동조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다(Williams & Sogon, 1984). 이러한 결과들은 집단주의자들은 내집단 성원들에게는 동조를 잘 하지만, 외집단에 대해서는 거의 동조를 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8) Asch는 본래 개인이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장면에서는 자기 견해와 다른 집단 의견에의 동조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 아래 연구를 시작하였다(Bond & Smith, 1996; Cialdini & Trost, 1998; Moscovici, 198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측과는 반대로 32%나 되는 동조량을 보이자, 그는 당혹하여 “실험집단의 압도적 다수(68%)의 응답은 다수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였다”(Asch, 1951, p. 181)고 자위하고 있다. 이렇게 “그는 동조가 사회 과정을 ‘오염시키며’(pollute), 따라서 사회는 그 시민들에게 독립성의 가치를 진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Bond & Smith, 1996, p. 111). 이 이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동조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해 왔던 것이다(Cialdini & Trost, 1998; Markus & Kitayama, 1994a).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동조의 의미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해주고 있다. 즉, 집단주의자들도 사회 압력에 저항해서 자신의 지각·태도·신념 등을 유지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타인과의 동조는 고도로 높이 평가되는 목표 상태로서, 이는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욕구와 원망을 조절하고 타인에게 화답하려는 용의성의 표현”(Markus & Kitayama, 1991a, p. 247)인 것이다.

이러한 동조행동의 문화간 차이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집단주의 사회에서 동조행동이 큰 까닭을 괴리가 설이나 인상관리책략에 입각하여 설명하려 하였다 (Bond & Hwang, 1986; Markus & Kitayama, 1991a, b, 1994a).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집단 성원과의 조화를 중시하므로, 공적 신념과 사적 신념이 대립할 때 사적 신념을 포기하고 공적 신념을 수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따라서 동조행동이 많아지므로, 공개적인 의견이나 태도는 진실한 내면적인 의견이나 태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러한 입장들의 전제이다. 그러나 Bond와 Hwang(1986)은 이에 대비되는 내면화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을 개인보다 우선시키고, 개인 존재는 집단 속에서만 그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므로써, 집단규범을 개인적 규범으로 받아들여 내면화하게 되고, 따라서 공개적인 의견이나 태도는 바로 개인에게 내면화된 가치의 반영이므로, 진실한 내면적인 의견이나 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Bond & Smith, 1996; Bond & Hwang, 1986; Markus & Kitayama, 1991a, b, 1994a).

이러한 내면화가설의 타당성은 Bontempo, Lobel과 Triandis(1990)에 의해 직접 밝혀지고 있다. 그들은 브라질과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내집단이 기대하는 부담스러운 행동”(예: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서 친한 친구의 병문안 가는 것)을 해야 하는지(당위성)와 이러한 행동이 즐겁겠는지(유희도)의 두 차원에서 응답하게 하였는데, 이때 응답은 공개조건과 익명조건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결과 브라질인들(집단주의자)은 공개조건과 익명조건에 차이없이 당위성과 유희도의 평정이 모두 높았음에 비해, 미국인들(개인주의자)

은 공개조건에서는 당위성과 유희도를 모두 높게 평정했으나, 익명조건에서는 모두 낮게 평정하여, 두 조건의 반응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는 브라질인들은 내집단의 규범을 내면화하여,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경우에도 이에 기꺼히 따르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내면화가설을 직접 지지해주고 있는 결과이다. 중국인의 이상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의 차이는 미국인보다 작으며, 따라서 사회 활동의 갈등도 더 적다는 사실(Harding, 1980)도 내면화 가설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변성-안정성 강조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을 다양한 상황과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며, 이러한 상황과 관계에 따른 역할, 지위 및 책임이 사회 행위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상황과 관계에 맞추어 스스로의 행위를 적합하게 조정할 것이 요구되므로, 상황과 관계에 따른 행위의 가변성을 인정하고 강조하게 된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은 스스로가 보유하거나 이룩한 능력·태도·가치관·성격·정서 등 내적 성향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며, 이러한 내적 성향이 사회 행위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속적인이고 안정된 내적 성향이 개인의 정체성의 기초가 되므로, 상황과 관계의 변이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안정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게 된다.

문화유형에 따른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는 두 문화권에서 중시하는 특성과 동기의 차이를 낳게 된다.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상황과 관계의 변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적합하게 조정하는 노력을 중시하며, 특히 스스로 자기의 단점을 확인하여 고쳐 나가는 자기개선의 노력을 중시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상황과 관계에 맞추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일관성 추구의 동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스스로의 안정된 성향을 증진 및 고양시키는 것을 중시하며, 특히 여러 가지 능력의 증진을 중시한다. 그리고 자기의 여러 측면들은 개인의 정체감을 구성하는 핵심이므로, 이들 사이의 일관

성을 추구하는 동기가 아주 강하게 부각될 것이다.

자기개선-자기고양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의존성이 문화적 명제이므로, 타인에의 배려와 조화의 유지를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적인 자기상이나 자기에 대한 정적인 감정보다는 자기의 부적인 측면과 부정적 감정에 더 민감하고, 또 이의 경험에 대해 수용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독립성이 문화적 명제이므로, 개인의 독특성을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의 장점과 고유성에 민감하게 되어, 정적인 자기상과 자기에 대한 정적인 감정을 추구하게 된다(조금호, 1997a; Diener & Diener, 1995; Diener & Larsen, 1993; Fiske et al., 1998; Heine & Lehman, 1995; Kitayama & Markus, 1994, 1995; Kitayama et al., 1994, 1995, 1997; Markus & Kitayama, 1994a).

이와 같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이를 통한 자기개선(self-improvement)의 방향으로의 문화적 압력이 존재하게 되어, 자기의 부정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정교화하게 된다. 그 결과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자기화(self-making)는 집단의 기대에 비추어 보아 자기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이를 수정하는 자기개선이 주축이 되며, 이러한 자기개선이 자존심의 근거가 된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고양(self-enhancement)의 방향으로의 문화적 압력이 존재하게 되어, 자기의 부정적 측면은 회피하거나 절감하는 대신, 자기의 정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정교화하게 된다. 그 결과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자기화는 자기 속에 갖추어져 있는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정적 특성(성격·능력 등)을 확인하고 고양시키는 일이 주축이 되며, 이러한 자기고양이 자존심의 근거가 된다(Fiske et al., 1998; Kitayama et al., 1994, 1995, 1997).

이러한 사실은 미국 성인의 자기개념을 구성하는 정적 특성은 부정적 특성의 4~5배나 되지만(Hoimberg, Markus, Herzog, & Franks, 1997), 일본인(Kitayama et al., 1995; Markus, Mullally, & Kitayama, 1997), 중국인(Bond & Cheung, 1983; Stigler, Smith, & Mao, 1985) 및 한국인(Ryff, Lee, & Na, 1995; Schmutte,

Lee, & Ryff, 1995)에게서는 그렇지 않거나 또는 부정적 특성으로 자기를 기술하는 경향이 그 반대의 경향보다 높다는 결과들에서 입증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유럽계 캐나다인들의 자기존중감의 분포는 이론적 중간점으로부터 압도적 다수(약 93%)가 정적인 방향으로 편포되어 있으나(Heine et al., in press, 그림 1), 일본인의 자기존중감 분포는 이론적 중간점을 기준으로 정상분포하고 있다(Heine et al., in press, 그림 2)는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리하여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부정적 특성보다는 정적 특성을 더욱 규범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이러한 정적 특성의 보유로 인한 자기만족도가 곧 행복감을 유발하는 기초가 된다. 그러나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집단 속에서의 조화와 사회 관계 속에서의 자기의 적합한 위치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이러한 조화를 해치거나 남에게 피해를 줄지도 모르는 부정적 측면의 확인과 개선에 힘쓰게 되므로, 이러한 노력이 곧 행복감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정적 측면의 확인에 기초한 자기만족도가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의 직접적인 지표가 되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만족도와 행복감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타인으로부터의 수용감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조화가 행복감의 직접적인 지표가 된다는 연구들(Diener & Diener, 1995; Heine & Lehman, 1995; Kwan, Bond, & Singelis, 1997)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집단주의 사회인 일본에서는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정적 특성의 지각 정도와는 무관하고, 자기가 부정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지각 정도가 행복감의 직접적인 지표가 된다는 결과(Kitayama & Karasawa, 1995)도 이러한 추론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자기고양편향(자기의 성공에 대해서는 내부귀인; 실패에 대해서는 외부귀인)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나 그 반대의 자기은폐편향(자기의 성공에 대해서는 외부귀인; 실패에 대해서는 내부귀인)이 나타나게 되며(조금호, 1993, 1996; 한규석, 1991a, 1995; Diener & Diener, 1993; Fiske et al., 1998; Heine &

Lehman, 1995; Kitayama & Markus, 1994, 1995; Kitayama et al., 1994, 1995, 1997; Markus & Kitayama, 1991a, b, 1994a, b 등), 미국인들은 성공 상황이 실패 상황보다 훨씬 자존심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일본인들은 반대로 실패 상황이 성공 상황보다 자존심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Kitayama et al., 1997).

이상에서 보듯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를 계속 상황에 조화롭게 변화시켜 개선할 수 있는 과정(process)으로서의 자기로 보는 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를 안정적이고 고정된 실체(entity)로서의 자기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Fiske et al., 1998; Kitayama et al., 1997). 그리하여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부정 측면이나 부정 정서는 자기개선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보아 무난히 수용되며, 삶의 과정에서의 실패는 더 많은 노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징표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개인주의 사회에서 부정 측면이나 부정 정서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의 원인이 되므로 적극 회피하고, 그 대신 긍정 측면과 긍정 정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게 되며, 그 결과 삶의 과정에서의 실패는 능력 부족의 징표로 받아들여, 자기개념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Morris & Peng, 1994; Pittman, 1998). 이러한 사실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학업 성취를 노력의 결과라고 보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이를 능력의 산물이라 본다는 결과들(조궁호, 1993, 1996; Mizokawa & Rickman, 1990; Stevenson & Stigler, 1992)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교사와 학생들은 학업 성취나 도덕적 행위를 노력의 문제라고 받아들여, 잘했을 때는 보상을 해주지만, 못했을 때는 비난을 하지 않는 반면, 미국의 교사나 학생들은 이를 능력의 문제라고 보아, 잘했을 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나, 못했을 때는 비난을 많이 하는 것이다(Hamilton, Blumenfeld, Akoh, & Miura, 1990).

Dweck(1991; Dweck & Leggett, 1988)은 사람들이 유능성, 특히 지적 능력을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고정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하면서, 전자를 증가론(Incremental theory), 후자를 실체론

(entity theory)이라고 불렀다. 또한 Dweck 등(Dweck, Hong, & Chiu, 1993)은 자신과 타인이 가변적인 특성들에 근거해서 행동한다고 받아들이는 증가론자와 고정된 특성에 근거해서 행동한다고 받아들이는 실체론자의 두 유형으로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에 따르면,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은 세계를 아주 다르게 인식하는데, 예를 들면 증가론자들은 여러 사회추론에서 상황특수적인 추론을 많이 하는 반면, 실체론자들은 고정되고 안정된 성향에 기초한 추론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유추해 보면, 집단주의 사회의 성원들은 증가론자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개인주의 사회의 성원들은 실체론자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이렇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대체로 능력을 선천적이고 고정된 안정적인 특성이라고 보지만(예: Weiner, 1979),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능력도 오랜 기간에 걸친 노력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Markus & Kitayama, 1991a, p. 244).

집단주의자들의 이러한 증가론자적인 특징은 능력에 대한 생각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성격 특성도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Choi, Nisbett, & Norenzayan, 1999). Norenzayan, Choi와 Nisbett(1998)은 성격에 대한 증가론과 실체론적 신념을 측정하는 Erdley와 Dweck(1993)의 척도를 미국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에게 실시해 본 결과, 미국 학생들은 강한 실체론적 신념(일시적인 행동은 변화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성격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 학생들은 증가론적 신념(일시적 행동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성격도 변화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던 것이다. 또한 Choi와 Markus(1998)는 한국인들은 미국인들과는 달리 개인의 성향은 실제로 주변 상황에 의해 조형되는 것이라는 신념이 강함을 발견

19) 타인의 행동이나 사회적 사건의 원인을 추론할 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상황 조건에서 원인을 찾는 상황귀인이 두드러지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 내의 속성에서 원인을 찾는 성향귀인이 두드러진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조궁호, 1993, 1996; 한규석 1995 참조).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주의 사회에서와는 달리 여러 가지 능력뿐만 아니라 성격까지도 가변적이어서, 개인의 노력을 통해 변화시키고 증진시킬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일관성 동기의 차이 자신의 여러 측면들(예: 태도와 행동, 여러 신념들 또는 인지 내용들) 사이의 균형과 일관적인 구조가 추구되고 선호된다는 생각(예: Festinger, 1957; Heider, 1958; Newcomb, 1961)은 초창기부터 사회심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을 형성해 왔다(Pittman, 1998). 이런 이론들에서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 또는 여러 신념 및 인지 내용들 사이에 불일치가 있으면, 이를 해소하려는 동기가 작동된다고 본다. “이러한 일관성의 추구 경향은 왕왕 인간의 합리성의 징표로 받아들여졌으며, 따라서 이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동기라고 간주되었다”(Fiske et al., 1998, p. 938).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러한 일관성동기의 보편성에 관한 신념은 무너지게 되었다(조공호, 1993, 1996; 한규석, 1991a; Fiske et al., 1998; Markus & Kitayama, 1991a, b; Triandis, 1989, 1990).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의 행위는 상황과 관계에 내재한 역할, 지위 및 책임에 따른 것이므로, 개인의 내적 특성과 행위의 불일치는 문제로 부각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회에서는 일관성 추구의 동기가 별로 작용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의 행위는 안정된 내적 속성의 발현이므로, 내적 속성과 행위의 불일치 또는 상황 간 행위의 불일치는 개인의 정체감에 심한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일관성 추구의 동기가 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Markus & Kitayama, 1991a, b). 즉,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 원망의 표출과 개인적 목표의 추구에 가치를 두므로, 자기의 내적 속성(예: 태도)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외적 제약에 굴복하는 비접합이나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한 위선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비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관계의 조화에 가치를 두므로, 개인의 내적 속성이 원만한 사회적 평형의 유지와 갈등할 때 이를 따르는 것은 이기적이

고, 미성숙하며, 불성실한 징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Fiske et al., 1998).

이러한 사실은 태도-행동 일관성에의 신념은 호주인이 일본인보다 훨씬 강하며, 일본인에게 있어서 태도-행동 불일치는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라 받아들여진다(Kashima, Siegel, Tanaka, & Kashima, 1992)는 연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일치하지 않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일치한다는 결과(Triandis, 1989, 1990)나 집단주의 사회인 일본에서는 개인주의 사회에서와는 달리 속마음과 겉표현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사실(Doi, 1986; Iwao, 1988) 및 우리 나라에서는 명시적 규범과 암묵적 행동 원리가 불일치하며, 이러한 경향은 나이 많은 세대일수록 더 심하다는 사실(나은영·민경환, 1998)도 위의 추론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개인의 내적 속성과 실제 외부로 드러나는 결과 사이의 불일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리 크게 놀라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내적 속성(기대)과 실제 결과 사이의 불일치는 심한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 크게 놀라게 될 것이다(Nisbett, Peng, Choi & Norenzayan, in press). 이러한 사실은 Choi와 Nisbett(in press)이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즉, 한국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보다 기대에 일치하지 않는 결과에 대해 별로 놀라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사후설명편향²⁰⁾(hindsight bias: Fischhoff, 1975)을 보여주는 것으로 밝혀졌던 것이다.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해 집단주의자들이 개인주의자들보다 사후설명편향을 크게 보인다는 것은, 개인주의자들은 기대와 결과의 일치에 대한 신념이 강하여, 이것이 어그러졌을

20) 어떤 일이 벌어진 이후에 그 일이 왜 벌어졌는가에 대한 설명(hindsight)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일에 대한 예측(foresight)보다 쉬우며, 이러한 사후설명은 실제로 우연적인 사건일지라도 필연적으로 그렇게 벌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 사후설명편향이다(Fischhoff, 1975).

총 합 고 찰

때 사후설명에 어려움을 겪지만, 집단주의자들은 이의 일치에 대한 신념이 약하므로, 이의 불일치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화유형에 따른 일관성동기의 이러한 차이는 서구에서 지금까지 1,000개 이상의 연구가 진행되어 사회심리학의 가장 중요하고도 풍요로운 이론이었던(Cooper & Fazio, 1984) 인지부조화이론²¹⁾(Festinger, 1957)에서 예측하는 부조화 해소(dissonance reduction) 효과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Fiske et al., 1998; Heine & Lehman, 1997). 예를 들면, Festinger와 Carlsmith(1959)의 불충분 타당화 효과²²⁾(insufficient justification effect)는 동양에서 재검된 경우도 있으나(예: Takata & Hashimoto, 1973),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예: Choi, Choi, & Cha, 1992; Yoshizaki, Ishii, & Ishii, 1975). 그리고 Brehm(1956)의 선택 결정 후의 부조화 해소 효과²³⁾가 미국인에게서는 거듭 재검되고 있으나, 일본인에게서는 이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검출되기도 하였던 것이다(Heine & Lehman, 1997).

이 이외에도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내집단과 외집단 성원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예: 친교행동, 분배행동, 동조행동 등)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내집단 성원과 외집단 성원에 대한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연구들(예: Bond & Hwang, 1986; Gudykunst, Yoon, & Nishida, 1987; Leung & Bond, 1982, 1984; Triandis, 1990; Williams & Sogon, 1984 등)도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일관성 추구의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1) 인지부조화이론은 1950년대 후반~70년대 초반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주도하였으나(Jones, 1985), 이 후 이론이 가지는 개념의 모호성과 실험 절차의 문제점이 지적되고(예: Rosenberg, 1965), 또 더 경제적인 설명 체계(예: Bem, 1967의 자기지각이론에 의한 불충분 타당화 효과 설명)가 제시되면서 관심이 쇠퇴하였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Pittman (1998)은 최근에 인지부 조화에 대한 연구 관심이 폭발되고 있다고 보면서, 이를 “인지부조화가 다시 원기를 회복하였다”(p. 561)고 적고 있다.

지금까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의 특징적인 동기들과 추구 목표나 대상 또는 강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동기들에 대해 살펴 보았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소속의 동기로부터 비롯하여, 존경, 모방, 친밀, 양육·보호, 수혜·의존, 비난회피, 굴종, 욕구통제, 자기개선 등 타인 및 집단에의 연결성과 사회통합, 대인간 조화, 자기억제 등을 지향하는 동기들이 특징적인 동기들로 중시된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율, 극복, 지배, 자기과시, 독립, 환경통제, 자기 고양 등 개인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지향하는 동기들이 특징적인 동기들로 중시된다. 이렇게 집단주의 사회에서 중시되는 특징적인 동기는 타인지향적·자기억제적·가변성 추구적인 동기들이고, 개인주의 사회에서 중시되는 특징적인 동기는 개인지향적·환경통제적·안정성 추구적인 동기들이었다.

이러한 특징적인 동기의 차이 이외에 문화유형에 따라 같은 동기라도 그 추구 대상이나 목표 또는 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즉, 무엇인가 보람있는 목표를 이루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같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 이는 가족 등 내집단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목표를 갖는 사회지향 성취동기로 나타나는 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 욕구의 추구라는 목표를 갖는 개인지향 성취동기로 나타난

22) 태도와 일치되지 않는 행동을 한 대가로 보상을 불충분하게 주었을 때(1\$ 제공)는 태도-행동의 불일치로 야기된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태도가 변화하였으나, 오히려 보상을 충분하게 주었을 때(20\$ 제공)는 불일치 행동에 대한 충분한 타당화가 이루어져 부조화가 야기되지 않았으므로, 태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현상. 이는 인지부조화이론의 설명이고, 이를 Bem(1967)은 자기지각이론(Bem, 1965)에 따라 귀인이론으로 설명한다.

23)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면, 선택된 선택지의 부정적 측면과 배척된 선택지의 정적 측면 사이에 불일치가 있게 되고, 여기서 부조화가 야기된다. Brehm (1956)에 따르면, 이의 해소를 위해 선택한 선택지의 정적 측면을 과장하거나 부정 측면을 과소하게 되고, 배척한 선택지의 정적 측면을 과소하거나 부정 측면을 과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선택한 선택지의 호감도는 선택 이전보다 높아지고, 배척한 선택지의 호감도는 낮아지므로써, 선택 결정으로 인해 생긴 부조화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표 2. 문화유형에 따른 특징적 동기(1)와 목표·대상·강도 차이의 동기(2)

차 원	집단주의(관계중심적 인간관)	개인주의(개체중심적 인간관)
사회행위의 원동력·목표	의존성 강조	자율성 강조
	(1) 타인지향동기	(1) 개인지향동기
	(2) 사회지향 성취동기	(2) 개인지향 성취동기
자기표현의 양식	집단중심 사회비교	개인중심 사회비교
	자기억제 강조	자기주장 강조
	(1) 욕구통제동기	(1) 환경통제동기
행위의 변이가능성	(2) 강한 동조동기	(2) 약한 동조동기
	가변성 강조	안정성 강조
	(1) 자기개선동기	(1) 자기고양동기
	(2) 약한 일관성동기	(2) 강한 일관성동기

다. 또한 스스로를 정확히 평가하므로써 효능감을 갖 추고자 하는 사회비교의 동기는 같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내집단을 외집단과 비교해서 평가하려 하고,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을 유사한 타인과 비교해서 평가하려 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내집단내의 의존성과 자기억제 및 상황에 따른 행위가변성을 강조하므로, 상대적으로 집단, 특히 내집단에 대한 강한 동조동기를 가지는 반면, 자기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동기는 약하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율성과 자기주장 및 내적 성향의 안정성을 강조하므로, 비록 내집단일지라도 집단내의 동조동기는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자기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동기는 아주 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유형에 따른 동기의 차이를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연구 기본틀의 유용성

표 2와 서두에 제시된 표 1을 결부시켜 보면, 본고에서 채택한 연구 기본틀의 유용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문화유형에 따른 사회인지(대인평가·귀인)와 정서(표 1) 및 동기(표 2)의 차이를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지배적인 인간관에 따른 사회행위의 원동력과 목표, 자기표현 양식, 행위의 변이가능성의 차원에서의 강조점의 차이(의존성-자율성; 자기억제-자기표현; 가변성-안정성)에 따라 통합적으로 일관성있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세 차원이 인간관 및 자기관의

제반 특성을 잘 요약해 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인간을 보는 관점의 차이는 행위원동력의 소재, 행위 주체인 자기를 드러내는 양식 및 이러한 자기의 상황 간 또는 시제열 상의 변이가능성 등 세 차원에서의 차이로 수렴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행위원동력의 소재 차원은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와 상호의존성이 주의의 초점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개별성이 주의의 초점인지 하는 주의의 지향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낸다. 이는 사회적 실체이면서 동시에 개별적 실체이기도 한 인간 존재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차원으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 특성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개별적 존재 특성을 중시하느냐 하는 주의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²⁴⁾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양식의 차원은 인간의 능동성이 자기 내부로 침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자기 외부로 발산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데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낸다. 즉, 인간의 활동성의 지향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²⁵⁾

24) 사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 하는 문제는 인류 역사상 부단히 부침되어왔던 중심적인 주제였다. 사회성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개별성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사회체제나 사회 구조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양은(1981, pp. 16-35) 참조.

25) Jung 이후 성격유형을 분류하는 대표적인 체계가 되어온 내향성-외향성(Introversion-Extraversion) 차원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능동성과 활동성의 지향처의 차이를 문제삼아 온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Eysenck(1953)와 Rotter(1966) 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인간 파악의 핵심적인 입장 중의 하나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위의 변이가능성의 차원은 사회 속에서의 행위자로서의 개인이 시(시계열)·공간(상황)적으로 열려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고정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낸다. 즉, 인간의 발달 또는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²⁶⁾

이렇게 보면, 이 세 차원은 인간의 존재 양식에 대한 세 가지 핵심적인 차원의 인식, 즉 개인으로서의 자기는 타인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사회성), 자기를 감추어야 하느냐 아니면 드러내야 하느냐(활동성), 그리고 자기는 변화하는 것이냐 아니면 고정된 것이냐(변화가능성)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의 제반 심성과 행동의 차이를 이 세 차원의 인식의 차이로 수렴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선행 작업(조공호, 1993, 1996, 1997a)과 본고의 기본틀은 그 자체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동기의 문화구속성

두 문화권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현상적 차이는 두 문화권에서 형성되고, 경험되며, 전수되는 세상사와 사람을 보는 관점이 상이한 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문화는 세상사에 대한 경험과 표상을 구조화하는, 한 사회의 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미체계(D'Andrade, 1981, 1984; Miller, 1984)이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는 곧바로 세계관과 인간관의 차이로 연결된다. 본고에서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권의 인간관을 각각

관계중심적 인간관과 개체중심적 인간관으로 개념화하고, 이 두 인간관의 차이가 곧바로 두 문화유형에서의 인간의 심성(인지·정서·동기)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문화구성주의의 전제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문화구성주의의 논지에 따르면, 인간의 심성과 문화는 상호구성적이다(Fiske et al., 1998; Kitayama et al., 1997). 그런데 문화와 심성 간 상호영향의 양방향 중 본고의 목적에 비추어 더욱 중요한 것은 문화적 전제가 심리적 과정으로 변형되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사회화가설이 제시되어 왔다(Solomon, 1971; Triandis, 1990). 즉, 문화 내용이 사회화과정을 거쳐 사회 성원들에게 내면화된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많은 연구들에서 채택되었으나, 인간의 문화적응성과 능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²⁷⁾ 이러한 관점에서 Bond와 Hwang(1986)은 사회화가설에 의해 중국인의 심성을 이해하려는 Solomon(1971)의 시도를 통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문화구성주의에서는 인간의 능동적인 문화화(enculturation) 과정을 강조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문화적 자기관은 각 문화의 철학적·존재론적 가정 속에 표상되며, 그 결과 그러한 존재론적 가정에 일치되는 사회상황을 산출해 내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개인은 주어진 문화체계 속의 유의미하고 기능적인 참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²⁸⁾ 점차 자기 문화체계의 지배적인 형태에 조율되고, 따라서 이를 지지 및 재생산하는 특정한 심리와

26) 변화가능성의 측면에서 인간 존재를 가변적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불변적이라고 보느냐 하는 생각도 아주 뿌리가 깊어서, 성격이론들의 대비를 이 차원으로 해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Erikson의 이론은 시간상에서의 인간의 부단한 변화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지만, Freud의 이론은 유아기에 경험되어 내재된 성격의 기본구조가 일생을 통해 불변이라고 본다는 점에 두 이론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Hjelle & Ziegler, 1981). 본고의 맥락에서는 개인주의자들이 불변론의 입장에 서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인간의 시간에 따른 발달(변화)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항상 안정된 평형상태 지향적이고, 그런 점에서 자기체계의 상황간·시계열간 일관성을 강조하지 않는 집단주의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상고착적 불변론의 색채가 짙다는 의미일 뿐이다.

27) Triandis(1990)는 [생태→문화→사회화→성격→사회행동]의 도식을 제안하여(p. 47의 그림 1 참조), 생물학적·경제적 생태 환경의 조건이 이에 적합한 문화를 낳고, 이는 이러한 문화에의 적응에 필연적인 사회화과정을 산출하여, 구성원들의 성격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문화유형에 따른 사회행동이 유발된다고 본다. 이는 인간의 피동적인 문화 수용의 과정을 전제하는 사회화가설의 전형적인 예이다.

28) Buss와 Kenrick(1988) 및 Fiske 등(1998)에 의하면, 진화심리학의 견해에서는, 인간은 해당 문화의 지배적인 명제를 받아들여 적응할 수 있는 진화론적 성향을 발달시켜 왔으며, 따라서 문화화는 인간의 능동적 적응성의 표출이라고 본다. 이러한 견해는 문화구성주의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으며(Fiske et al., 1998), 바로 이러한 점에 문화구성주의와 사회화가설의 차이가 있다.

정을 발달시키게 된다는 것이다(Kitayama et al., 1997).

이러한 문화구성주의의 논지는 안신희(1999)에 의해 사실로 검증되고 있다. 그는 사회적지지 욕구, 동일시를 통한 자존감 증진 욕구 등 집단주의의 특징적인 동기가 자아개념의 확장을 낳고, 결과적으로 자기 희생, 내집단 편애, 연고적 투표행동 등 집단주의의 특징적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는 [동기→자아개념→행동]의 모형을 확인해 보려 하였다. 이를 위해 집단주의의 특징적 동기, 자아개념, 특징적 행동을 측정하는 여러 척도들을 대도시(부산), 중도시(김해), 소도시(진주)의 대학생과 노인들에게 실시하였다. 이 자료의 공변량 구조분석 결과, 그는 원래의 모형(집단주의적 동기→자아확장→집단주의적 행동)이 타당하지 않고, 그 대신 여러 동치모형 중 [자아확장→집단주의적 동기→집단주의적 행동]의 모형이 가장 타당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기본 전제인 문화구성주의의 입장을 그대로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자아확장은 집단주의의 인간관에서 나오는 자기관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적 자기를 공적 자기 및 집단적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으며(Tirandis, 1989, 1990; Weldon, 1984), 동아시아 집단주의의 이론적 배경인 유학 사상의 기본 주제는 인간의 자아확장이었던 것이다(조궁호, 1998, 1999; Bond & Hwang, 1986; DeVos, Marsella, & Hsu, 1985; Hsu, 1985; Tu Wei-Ming, 1985). 이렇게 보면, 안신희(1999)의 연구는 [집단주의적 자기관→집단주의적 동기→집단주의적 행동]이라는 경로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인간 심성에 관한 문화구성주의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확장과 자기실현

지금까지 분명하여졌듯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성격·태도·감정·신념 등 행위의 모든 원동력을 그 자체 속에 완비한 개인이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라고 본다. 이 사회에서는 타인이나 집단과 분리된

이러한 개인의 독특성과 자율성 및 독립성의 달성이 사회적 명제이고, 따라서 이러한 독특하고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개인이 이상적 인간이다(Fiske et al., 1998; Johnson, 1985; Miller, 1997). Maslow(1968)의 용어를 빌리면, 이러한 독특성, 자율성, 독립성을 달성하여 개인이 잠재적으로 지닌 모든 내적 성향을 이루어내는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이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 삶의 이상인 것이다(Wilson, 1997). 이렇게 보면, 자기실현동기는 개인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근본동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Munro, 1997).

이에 비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을 사회 관계 속에서의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파악하며, 이러한 관계 속의 역할, 규범 및 사회적 연대가 개인의 특성보다 더 중요한 행위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이 사회에서는 상호연관된 관계적 존재인 개인들이 이러한 관계와 역할의 연쇄망 속에 참여하여, 상호의존성과 조화로운 관계, 그리고 원만한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인간 삶의 이상이라고 본다(Fiske et al., 1998; Miller, 1997; Tu Wei-Ming, 1985).

그러나 이 경우의 상호의존성은 사회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지향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신의 개인적 가치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상호의존적인 삶이란 자기의 상실이나 자기에 대한 관심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의·인지·감정·동기가 관계 및 규범에 터해서 조직화되는 것을 의미할 뿐인 것이다(Fiske et al., 1998). 그러므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잘 발달되고 분화된 자기관이 요청되는 것이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여러 측면들이 서로 분리되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²⁹⁾(Triandis, 1989, 1990), 이들간의 조화로운 관계 설정이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29) 인도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는 구획된 실체(bounded entity)로서의 individual(분리할 수 없는 통합된 존재)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개별적인 여러 측면들의 dividual(분리할 수 있는 분절된 존재)로 받아들여진다(Bharati, 1985, pp. 219-225; DeVos, Marsella, & Hsu, 1985, p. 14; Marriott, 1977, p. 111)는 지적은 이러한 사실을 극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의 여러 측면, 예를 들면 스스로가 보는 사적 자기, 일반적인 타인이 보는 나에 대한 견해인 공적 자기 및 집단의 성원들이 보는 나에 대한 견해인 집단적 자기(Baumeister, 1986)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상호의 존성을 최대화하는 것을 이상적 인간의 중요한 특징 이라고 받아들인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과 조화는 나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타인이 나 집단을 나 자신 속에 끌어 들여 나 자신과 동일시 하는 데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타인이나 집단을 자신의 중요한 속성의 하나로서 자신의 정의 안에 포함시키는 자기확장(self-expansion)이 집단주의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동기가 될 것 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Aron과 그 동료들(Aron & Aron, 1986; Aron, Aron, & Smollan, 1992; Aron, Aron, Tudor, & Nelson, 1991)은 이러한 자기확장동기가 인간의 기본적인 동 기의 하나라고 제안하고, 이는 타인과의 밀접한 애착 관계의 형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 다. 이러한 자기확장은 밀접한 관계 형성 이외에도 중요한 타인과의 인식이나 소속집단의 인식을 활성화 하므로써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Brewer & Gardner, 1996; Hinkley & Anderson, 1996; Smith & Henry, 1996), 타인의 역할을 수행하 여 타인의 조망을 취득하는 절차에 의해서도 자기확 장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수원, 1993, 1994; Davis, Conklin, Smith, & Luce, 1996).

이상의 논의에서 보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독립 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의 자기실현동기를 가장 근본적 인 동기로 보는 반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타인을 자신 속에 포괄하여”(Aron & Aron, 1986, p. 19) 개체로서의 개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자기확장동기를 가 장 근본적인 동기로 보는 것이다. 자기실현동기를 근 본동기로 보는 개인주의의 배경에는 신-악마; 선-악; 인간-자연; 마음-신체; 자기-타인; 개인-집단(사회)을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하는 서구의 이원론적 철학이 깔려 있다. 이에 비해, 자기확장동기를 근본동기로 보 는 집단주의의 배경에는 동양의 일원론적 철학이 깔 려 있어서, 인간과 자연, 자기와 타인 그리고 개인과

집단(사회) 등을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 고, 서로를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Fiske et al., 1998; Johnson, 1985; Markus & Kitayama, 1991a, b; Miller, 1997).

또한 개인주의의 배경에는 자유의지(free will)에 따 른 합리적 선택으로 인간의 목표지향성을 이해하려는 자유주의적 전통이 놓여 있다(Johnson, 1985). 반면에 집단주의, 특히 동아시아 집단주의의 배경에는 인간 을 관계 속의 존재로 파악하며, 이러한 관계 속의 조 화와 사회성의 실현을 인간 발달의 궁극적인 지향처 로 보는 유학 사상이 놓여 있다(조공호, 1998, 1999; Bond & Hwang, 1986; Hsu, 1971, 1985; King & Bond, 1985; Tu Wei-Ming, 1985). 유학 사상의 핵심 은 바로 인간의 존재 확대 또는 확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³⁰⁾(조공호, 1998, 1999; Tu Wei-Ming, 1985).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보면, 본고에서 개관한 두 문화유형에서의 제반 동기의 차이는 바로 이러한 두 문화유형의 근본동기의 차이(자기확장동기와 자기실

30) 이러한 생각의 근거는 다양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자기완성(修己, 聖之清)·사 회관계완성(安人, 聖之和)·사회적 책임완성(安百姓, 聖 之任)의 세 단계로 이상적 인간을 그려내는 君子論(聖 人論)(《論語》憲問篇 45장; 《孟子》萬章下篇 1장)과 格 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大學》에 서 제시하는 八條目の 육구위계설이다. 특히 《大學》에 서는 “옛날에 광명한 덕을 천하에 밝히려 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나라를 다스렸고,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 려 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집을 정돈하였으며, 자기의 집을 다스리려 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덕을 닦았다. 그리고 자기의 덕을 닦으려 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마 음을 바로 잡았고, 자기의 마음을 바로 잡으려 한 사 람은 먼저 자신의 뜻을 참되게 하였으며, 자기의 뜻을 참되게 하려 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지혜를 넓혔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넓히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구 명하는 데 달렸다”(經 1장)라고 제시하여, 자기확장의 단계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즉, 八條目 각각에서 상 위 조목은 하위 조목의 목표로서, 최상위 목표인 平天 下까지 자기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도 록 노력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유학 사상에서 이러한 자기확장의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 중에는 사랑(仁: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孟子》盡心上篇 45장)과 타인의 역할취득(絜矩之道: 《大學》傳 10장)이 들어 있는데, 이는 자기확장에 관 한 앞의 연구자들의 연구들(예: Aron et al., 1986, 1991, 1992; Davis et al., 1996)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해 볼 수 있는 입장이자 하겠다.

현동기)로 수렴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 특징적인 타인지향동기, 욕구통제동기, 동조동기, 자기개선동기 등은 모두 자기확장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개인주의 사회에서 특징적인 개인지향동기, 환경통제동기, 자기고양동기, 일관성추구동기 등은 모두 자기실현동기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동기의 차이는 이러한 하위 동기들의 차이 이외에도, 두 문화권에서의 도덕관의 차이³¹⁾ 등 제반 사회행동의 차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나은영·민경환(1998).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이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75-93.
- 안신호(1999). 한국의 집단주의에 관한 동기-자아개념-행동 모형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21-164.
- 안신호·김진·이상희(1991). 한국에서의 성취동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991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391-397). 서울: 한국심리학회.
- 이수원(1993). 사회적 갈등의 인지적 기제: 사회적 자아중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2), 1-23.
- 이수원(1994). 사회적 자아중심성: 타인이해에서 성향주의의 원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3(1), 129-152.
- 정양은(1981). 사회심리학. 서울: 법문사.
- 정영숙(1994).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정영숙(1995). 두 유형의 사회적 기대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1), 85-97.
- 정영숙(1996).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아동의 과제수행 열심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1), 159-170.
- 조금호(1993).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 대인평가 이론모형의 확대 시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24-149.
- 조금호(1996). 문화유형과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1), 104-139.
- 조금호(1997a). 문화유형과 정서의 차이: 한국인의 정서 이해를 위한 시론. 심리과학(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6(2), 1-43.
- 조금호(1997b). 상사의 특성과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도. 김명언·박영석 편, 한국 기업문화의 이해(307-349). 서울: 오름.
- 조금호(1998). 유학심리학: 맹자·순자 편. 서울: 나남출판.
- 조금호(1999). 선진유학 사상에서 도출되는 심리학의 문제: 맹자와 순자를 중심으로. 미발표 원고. 서강대학교.
- 조은경(1994). 사회심리학의 최근 동향: 동기와 정서의 복귀. 한국심리학회지, 심리학 연구의 최근 동향: '94(39-82). 서울: 한국심리학회.
- 朱熹(1177). 論語集註. (경성서적조합편, 原本備旨 論語集註. 서울: 태산문화사, 1984.)
- 朱熹(1177). 大學集註. (경성서적조합편, 原本備旨 大學·中庸. 서울: 태산문화사, 1984.)
- 朱熹(1177). 孟子集註. (경성서적조합편, 原本備旨 孟子集註. 서울: 태산문화사, 1984.)
- 차재호·정지원(1990). 친애욕구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보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1-9.

31) Taylor(1989)는 한 사회의 도덕 관념은 그 사회의 인간관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았다. 즉, 서구에서는 인간을 타인 및 집단과 분리되고 구획된 독립적인 실체라고 보므로, 개인은 자기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자기가 지향하고 있는 바를 자유롭게 추구하고, 이에 맞게 살 도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도덕성의 핵심을 개인의 자유선택과 독립적인 개인 간의 계약에서 찾는다. 이에 비해, 동양에서는 인간은 타인 및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므로, 자기확장을 비전으로 하는 타인 및 집단에의 배려에서 도덕성의 핵심을 찾는다(Fiske et al., 1998; Hamilton et al., 1990; Miller, 1991 1994, 1997; Miller & Bersoff, 1992, 1994). 이렇게 두 문화권의 도덕 관념도 각각의 근본동기의 차이로 수렴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최상진(1995). 한국인의 통제 유형. 임능빈편, 동양사상과 심리학(535-543). 서울: 성원사.
- 한규석(1991a). 사회심리학 이론의 문화특수성: 한국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1), 132-155.
- 한규석(1991b).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0(1), 1-19.
- 한규석(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Arndt, J., Greenberg, J., Solomon, S., Pyszczynski, T., & Simon, L.(1997). Suppression, accessibility of death-related thoughts and cultural worldview defense: Exploring the psychodynamics of terror man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18.
- Aron, A., & Aron, E. N.(1986). *Love and the expansion of self: Understanding attraction and satisfaction*. New York: Hemisphere.
- Aron, A., Aron, E. N., & Smollan, D.(1992). Inclusion of Other In the Self Scale and the structure of interpersonal clos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596-612.
- Aron, A., Aron, E. N., Tudor, M., & Nelson, G. (1991). Close relationships as including other in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41-253.
- Asch, S. E.(1951). Effects of group pressure on the modification and distortion of judgments. In H. Guetzkow(Ed.), *Groups, leadership and men* (177-190). Pittsburgh, PA: Carnegie.
- Atkinson, J. W., Heyns, R. W., & Veroff, J.(1954). The effect of experimental arousal of the affiliation motive on thematic appercep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9, 405-410.
- Bakan, D.(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ron, R. A., & Byrne, D.(1997). *Social psychology* (8th ed.). Boston, MA: Allyn & Bacon.
- Batson, C. D., & Ventis, W. L.(1982). *The religious experience: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umeister, R. F.(1986). *Identity: Cultural change and the struggle for self*.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umeister, R. F.(1991). *Meaning of life*. New York: Guilford.
- Baumeister, R. F.(1998). The self.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 1, 680-740). New York: McGraw-Hill.
- Baumeister, R. F., & Leary, M. R.(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eck, R. C.(1983). *Motivation: Theories and principles*(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m, D. J.(1965). An experimental analysis of self-persuas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 199-218.
- Bem, D. J.(1967). Self-perception: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cognitive dissonance phenomena. *Psychological Review*, 74, 183-200.
- Berkowitz, L.(1969). Social motivation. In G. Lindzey & E. Aronson(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2nd ed., Vol. 3, 50-135). Reading, MA: Addison-Wesley.
- Bharati, A.(1985). The self in Hindu thought and action. In A. J. Marsella, G. A. De Vos, & F. L. K. Hsu(Eds.), *Culture and self: Asian and Western perspectives*(185-230). New York:

Tavistock.

- Block, J., & Colvin, C. R.(1994). Positive illusions and well-being revisited: Separating fiction from fact. *Psychological Bulletin*, 116, 28.
- Blumenthal, E. P.(1977). Models in Chinese moral education: Perspectives from children's book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7, 6357A-6358A.
- Bond, M. H.(Ed.)(1986). *The psychology of the Chinese people*.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Bond, M. H.(1988). *The cross-cultural challenge to social psychology*. Beverly Hills, CA: Sage.
- Bond, M. H., & Cheung, T. S.(1983). College students' spontaneous self-concepts: The effect of culture among respondents in Hong Kong,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4, 153-171.
- Bond, M. H., & Hwang, K. K.(1986). The social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In M. H. Bond(Ed.), *The psychology of Chinese people*(213-266).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Bond, M. H., & Smith, P. B.(1996). Culture and conformity: A meta-analysis of studies using Asch's(1952b, 1956) line judgement task. *Psychological Bulletin*, 119, 111-131.
- Bontempo, R., Lobel, S. A., & Triandis, H.(1990). Compliance and value internalization in Brazil and the U. S.: Effects of allocentrism and anonym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1, 200-213.
- Boyatzis, R. E.(1973). Affiliation motivation. In D. C. McClelland & R. S. Steele(Eds.), *Human motivation: A book of readings*(53-81).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Press.
- Brehm, J. W.(1956). Post-decision changes in desirability of alternativ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2, 348-389.
- Brewer, M. B., & Gardner, W.(1996). Who is this "we"? Levels of collective identity and self repres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3-93.
- Brown, J. D.(1986) Evaluation of self and others: Self-enhancement biases in social judgement. *Social Cognition*, 4, 353-376.
- Brown, J. D., & Taylor, S. E.(1986). Affect and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Evidence for mode-activated self-schemata.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436-452.
- Buck, R.(1985). Prime theory: An integrated view of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2, 389-413.
- Buss, D. M., & Cantor, N.(Eds.)(1988). *Personlity psychology: Recent trends and emerging directions*. New York: Springer-Verlag.
- Buss, D. M., & Kenrick, D. T.(1998). Evolutionary social psychology.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 2, 982-1026). Boston, MA: McGraw-Hill.
- Carr, S. C., & MacLachlan, M.(1997). Motivational gravity. In D. Munro, J. F. Schumaker, & S. C. Carr(Eds.), *Motivation and culture*(133-155). New York: Routhedge.
- Chang, W. C., Chua, W. L., & Toh, Y.(1997). The concept of psychological control in the Asian context. In K. Leung, U. Kim, S. Yamaguchi, & Y. Kashima(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Vol. 1, 95-117). Singapore: Wiley.
- Chang, W. J.(1980). Affiliation tendency and sociometric status. *Bulletin of Educational Psychology*, 13, 153-178.
- Cheung, F. M. C.(1986). Psychopathology among Chinese people. In M. H. Bond(Ed.), *The psychology of Chinese people*(171-212).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Choi, I., Choi, K. W., & Cha, J. H.(1992). *A cross-cultural replication of Festinger and Carlsmith (1959)*. Unplished manuscrip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I., & Markus, H. R.(1998). *Implicit theories and casual attribution: East and West*.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
- Choi, I., & Nisbett, R. E.(in press). The cultural psychology of surprise: Holistic theories and recognition of contradi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Choi, I., Nisbett, R. E., & Norenzayan, A.(1999). Causal attribution across cultures: Variation and univers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 47-63.
- Chung, Y. E.(1994). Void and non-conscious processing. In G. Yoon & S. C. Choi(Eds.), *Psychology of the Korean people: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Seoul: Dong-A.
- Cialdini, R. B., & Trost, M. B.(1998). Social influence: Social norms, conformity, and compliance.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 2, 151-192). Boston, MA: McGraw-Hill.
- Clark, M. S., & Mills, J.(1979). Interpersonal attraction in exchange and commun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2-24.
- Clark, M. S., & Mills, J.(1993). The difference between communal and exchange relationships: What is and is no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684-691.
- Colvin, C. R., & Block, J.(1994). Do positive illusions forster mental health? An examination of the Taylor and Brown 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6, 3-20.
- Cooper, J., & Fazio, R. H.(1984). A new look at dissonance theory.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17, 229-266). Orlando, FL: Academic Press.
- Crocker, J.(1982). Biased question in judgement of covariance stud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 214-220.
- D'Andrade, R. G.(1981). The cultural part of cognition. *Cognitive Science*, 5, 179-195.
- D'Andrade, R. G.(1984). Cultural meaning systems. In R. A. Shweder & R. A. LeVine(Eds.), *Culture theory: Essay on mind, self and emotion*(88-119).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ndrade, R. G.(1992). Schemas and motivation. In R. G. D'Andrade & C. Strauss(Eds.), *Human motives and cultural models*(23-4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ndrade, R. G. & Strauss, C.(Eds.)(1992). *Human motives and cultural model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s, M. H., Conklin, L., Smith, A., & Luce, C. (1996). Effect of perspective taking on the cognitive representation of persons: A merging of self and o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713-726.
- Deci, E. L., & Ryan, R. M.(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iener, E., & Diener, M.(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 Larsen, R. J.(1993). The experience of emotional well-being. In M. Lewis & J. M. Haviland(Eds.), *Handbook of emotion*(405-514). New York: Guilford.
- DeVos, G. A.(1973). *Socialization for achievement: Essay on the cultural psychology of the Japa-*

- nes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eVos, G. A., Marsella, A. J., & Hsu, F. L. K. (1985). Introduction: Approaches to culture and self. In A. J. Marsella, G. A. DeVos, & F. L. K. Hsu(Eds.), *Culture and self: Asian and Western perspectives*(2-23). New York: Tavistock.
- Doi. T.(1986). *The anatomy of self: The individual versus society*. Tokyo: Kodansha.
- Dore, R.(1973). *British factory-Japanese factory*. London: Allen & Unwin.
- Duffy, E.(1962). *Activation and behavior*. New York: Wiley.
- Dumont, L.(1970). *Homo hierarchicu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weck, C. S.(1991). Self-theories and goals: Their role in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In R. A. Dienstbier(Ed.), *Perspectives on motivatio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90*(199-235). Lincoln, N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Dweck, C. S., & Leggett, E. L.(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 256-273.
- Dweck, C. S., Hong, Y., & Chiu, C.(1993). Implicit theories: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likelihood and meaning of dispositional infer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644-656.
- Earley, P. C.(1989). Social loafing and collectivism: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4, 565-581.
- Earley, P. C.(1993). East meets West meets Mideast: Further exploration of collectivistic and individualistic work group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6, 319-348.
- Earley, P. C.(1994). Self or group? Cultural effects of training on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9, 89-117.
- Edwards. A. L.(1959). *Manual for the Personal Preference Schedule*. New York: Psychological Corp.
- Erdley, C. A., & Dweck, C. S.(1993). Children's implicit personality theories as predictors of their social judgments. *Child Development*, 64, 863-878.
- Eysenck, H. J.(1953). *The structure of human personality*. New York: Wiley.
- Festinger, L.(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Festinger, L.(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IL: Row, Peterson.
- Festinger, L., & Carlsmith, J. M.(1959). Cognitive consequences of forced complia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8, 203-210.
- Fiske, A. P., Kitayama, S., Markus, H. R., & Nisbett, R. E.(1998).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 2, 915-981). Boston, MA: McGraw-Hill.
- Fiske, S. T.(1993). Social cognition and social percep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155-194.
- Fiske, S. T., & Taylor, S. E.(1991). *Social cognition* (2nd ed.). New York: McGraw-Hill.
- Fischhoff, B.(1975). Hindsight $\neq$ foresight: The effect of outcome knowledge on judgment under uncertaint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1, 288-299.
- Franken, P. E.(1998). *Human motivation*(4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Friend, R., Rafferty, Y., & Bramel, D.(1990). A puzzle.

- zling misinterpretation of the Asch conformity stud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 29-44.
- Fuster, J. M.(1962). A study of the Edwards Personal Preference Schedule on Indi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7, 309-314.
- Gabrenya, W. K., Latané, B., & Wang, Y.(1983). Social loafing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Chinese on Taiwa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4, 368-384.
- Gabrenya, W. K., Wang, Y., & Latané, B.(1985). Social loafing on an optimizing task: Cross-cultural differences among Chinese and America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6, 223-242.
- Geen, R. G.(1991). Social motiv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2, 377-399.
- Geen, R. G.(1995a). *Human motivation: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Geen, R. G.(1995b). Social motivation. In B. Parkinson & A. M. Colman(Eds.), *Emotion and motivation*(38-57). London: Longman.
- Geen, R. G., & Shea, J. D.(1997). Social motivation and culture. In D. Munro, J. F. Schumaker, & S. T. Carr(Eds.), *Motivation and culture*(33-48). New York: Routledge.
- Gentner, D., & Grudin, J.(1985). The evolution of mental metaphors in psychology: A 90-year retro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0, 181-192.
- Gergen, K. J.(1973). Social psychology as his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309-320.
- Gergen, K. J.(1985). Social constructionist inquiry: Content and implications. In K. J. Gergen & K. E. Davis(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erson*(3-18). New York: Springer-Verlag.
- Gergen, K. J., & Davis, K. E.(Eds.)(1985).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erson*. New York: Springer-Verlag.
- Gergen, K. J., & Gergen, M. M.(1988). Narrative and the self as relationships.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1, 17-56). New York: Academic Press.
- Gilbert, D. T., Fiske, S. T., & Lindzey, G.(Eds.) (1998).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Boston, MA: McGraw-Hill.
- Goodwin, R.(1997). Cross-cultural personal relationship. In D. Munro, J. F. Schumaker, & S. C. Carr(Eds.), *Motivation and culture*(49-68). New York: Routledge.
- Greenberg, J., Pyszczynski, T., & Solomon, S.(1986).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 need for self-esteem: A terror management theory. In R. F. Baumeister(Ed.), *Public self and private self* (189-212). New York: Springer-Verlag.
- Greenberg, J., Pyszczynski, T., Solomon, S. Rosenblatt, A., Veeder, M., Kirkland, S., & Lyon, D. (1990). Evidence for terror management theory II: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on reactions to those who threaten or bolster the cultural world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308-318.
- Gudykunst, W. B., Yoon, Y., & Nishida, D.(1987). The influence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on perceptions of communication in ingroup and outgroup relationships. *Communication Monographs*, 54, 295-306.
- Hamilton, V. L., Blumenfeld, C., Akoh, H., & Miura, K.(1990). Credit and blame among American and Japanese children: Normative, cultural, and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442-451.
- Harding, C.(1980). East meets West: A conflict of values. *Hong Kong Psychological Society Bulletin*, 5, 35-43.

- Hayashi, C.(1988). *National character of the Japanese*. Tokyo: Statistical Bureau, Japan.
- Heckhausen, H.(1990). *Motivation and action*. Berlin: Springer-Verlag.
- Heider, F.(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Heine, S. J., & Lehman, D. R.(1995). Cultural variation in unrealistic optimism: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95-607.
- Heine, S. J., & Lehman, D. R.(1997). Culture, dissonance, and self-affirm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389-400.
-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in press).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 Higgins, E. T., & Sorrentino, R. M.(Eds.)(1990).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2nd ed.). New York: Guilford.
- Hilgard, E. R.(1980). The trilogy of mind: Cognition, affection, and conation.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Behavioral Sciences*, 16, 107-117.
- Hilgard, E. R.(1987). *Psychology in America: A historical survey*. San Diego, CA: Harcourt Brace Jovanovich.
- Hinkley, K., & Anderson, S. M.(1996). The working self-concept in transference: Significant-other activation and self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279-1295.
- Hjelle, L. A., & Ziegler, D. J.(1981). *Personality theories: Basic assumption, research, and applications*(2nd ed.). New York: McGraw-Hill.(○) 훈구 역. 성격심리학. 서울: 법문사, 1983.)
- Ho, D. Y. F.(1979). Psychological implications of collectivism: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hinese case and Maoist dialectics. In L. H. Ekensberger, W. J. Lonner, & Y. H. Poortinga (Eds.), *Cross-cultural contributions to psychology*(143-150). Lisse, Netherlands: Swets & Zeitlinger.
- Ho, D. Y. F.(1986). Chinese patterns of socialization: A critical review. In M. H. Bond(Ed.), *The psychology of Chinese people*(1-37).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Hofstede, G.(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fstede, G.(1983). Dimension of national cultures in fifty countries and three regions. In J. B. Derogowski, S. Dziurawiec, & R. C. Annis(Eds.), *Explorations in cross-cultural psychology*(335-355). Lisse, Netherlands : Swets & Zeitlinger.
- Hofstede, G.(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차재호 · 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1995.)
- Hogan, R.(1983). A socioanalytic theory of personality. In M. Page & R. Dienstbier(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2(55-89). Lincoln, N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Holmberg, D., Markus, H., Herzog, A. R., & Franks, M.(1997). *Self-making in American adults: Content, structure and functio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
- Hsu, F. L. K.(1971). Psychological homeostasis and jen: Conceptual tools for advancing psychological anthropology. *American Anthropologist*, 73, 23-44.
- Hsu, F. L. K.(1983). *Rugged individualism reconsidered*. Knoxville, TN: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 Hsu, F. L. K.(1985). The self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A. J. Marsella, G. A. DeVos, & F. L. K. Hsu(Eds.), *Culture and self: Asian and*

- Western perspective*(24-55). New York: Tavistock.
- Iwao, S.(1988, Agust). *Social psychology's models of man: Isn't it time for East to meet West?* Invited address to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Scientific Psychology, Sydney, Australia.
- Jahoda, M.(1958). *Current concepts of positive mental health*. New York: Basic Books.
- Johnson, F.(1985). The Western concept of self. In A. J. Marsella, G. A. DeVos, & F. L. K. Hsu (Eds.), *Culture and self: Asian and Western perspective*(91-138). New York: Tavistock.
- Jones, E. E.(1985). Major developments in social psychology during the past five decades. In G. Lindzey & E. Aronson(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3rd ed., Vol. 1, 47-107). New York: Random House.
- Jones, E. E., & Davis, K. E.(1965). From acts to dispositions: The attribution process in person perception.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 219-266). New York: Academic Press.
- Jourard, S. M., & Landsman, T.(1980). *Healthy personality: An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humanistic psychology*(4th ed.). New York: Macmillan.
- Kagitcibasi, C.(1994). A critical appraisal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oward a new formulation.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52-65). Thousand Oaks, CA : Sage.
- Kahneman, D., Slovic, P., & Tversky, A.(Eds.)(1982).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o, H. S. R., & Ng, S. H.(1997). Work motivation and culture. In D. Munro, J. F Schumaker, & S. C. Carr(Eds.), *Motivation and culture*(119-132). New York: Routledge.
- Karau, S. J., & Williams, K. D.(1993). Social loafing: A meta-analytic review and theoretical integ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681-706.
- Kashima, Y.(1997). Culture, narrative, and human motivation. In D. Munro, J. F. Schumaker, & S. C. Carr(Eds.), *Motivation and culture*(16-30). New York: Routledge.
- Kashima, Y., Siegel, M., Tanaka, K., & Kashima, E. S.(1992). Do people believe behaviors are consistent with attitudes? Toward a cultural psychology of attribution process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111-124.
- Kelley, H. H.(1967). Attribution theory in social psychology. In D. Levine(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192-238). Lincoln, N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Kelley, H. H.(1972). Causal schemata and the attribution process. In E. E. Jones, D. E. Kanouse, H. H. Kelley, R. E. Nisbett, S. Valins, & B. Weiner(Eds.),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151-174).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 King, A. Y. C., & Bond, M. H.(1985). The Confucian paradigm of man: A sociological view. In W. S. Tseng & D. Y. H. Wu(Eds.), *Chinese culture and mental health*(29-46). New York: Academic Press.
- Kitayama, S., & Karasawa, M.(1995). Self: A cultur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apanes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 113-165.
- Kitayama, S., & Markus, H. R.(Eds.)(1994). *Emotion and culture: Empirical investigations of mutual influe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itayama, S., & Markus, H. R.(1995). Construal of self as cultural frame: Implications for interna-

- tionlizing psychology. In N. R. Goldberger & J. B. Veroff(Eds.), *The culture and psychology reader*(366-383).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Kitayama, S., Markus, H., & Kurokawa, M.(1994). *Cultural views of self and emotional experience: Does the nature of good feelings depend on culture?* Unpublished manuscript. Kyoto University, Kyoto, Japan.
- Kitayama, S., Markus, H. R., & Lieberman, C.(1995). The collective construction of self-esteem: Implications for culture, self and emotion. In J. Russel, J. Fernandez-Dols, T. Manstead, & J. Wellenkamp(Eds.), *Everyday conceptions of emotion: An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y, anthropology, and linguistics of emotions*(523-550). Dordrecht,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of self-esteem management: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45-1267
- Kitayama, S., Markus, H., Tummala, P., Kurokawa, M., & Kato, K.(1990). *Culture and self-cognitio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Oregon.
- Kitayama, S., Palm, R., Masuda, T., & Carroll, J. (1998). *Interdependent and independent modes of cultural participation: Coping with earthquake risk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manuscript. Kyoto University, Kyoto, Japan.
- Kornadt, H. J., Eckensberger, L. H., & Emminghaus, W. B.(1980). Cross-cultural research on motivation and its contribution to a general theory of motivation. In H. C. Triandis & W. Lonner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Basic Processes*(Vol. 3, 223-321). Boston: Allyn & Bacon.
- Kövecses, Z.(1990). *Emotion concepts*. New York: Springer-Verlag.
- Kravitz, D., & Martin, B.(1986). Ringelmann rediscovered: The original artic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36-941.
- Kubany, E. S., Gallimore, R., & Buell, J.(1970). The effects of extrinsic factors on achievement-oriented behavior: A non-Western cas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 77-84.
- Kuhl, J.(1986). Motivation and information processing: A new look at decision making, dynamic change, and action control.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404-434). New York: Guilford.
- Kunda, Z. (1990).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08, 480-498.
- Kwan, V. S. Y., Bond, M. H., & Singelis, T. M. (1997). Pancultural explanation for life satisfaction: Adding relationship harmony to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38-1051.
- Langer, E. J.(1975). The illusion of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311-328.
- Langer, E. J., & Roth, J.(1975). Heads I win, tails it's chance: The illusion of control as a function of the sequence of outcomes in a purely chance ta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951-955.
- Latané, B., Williams, K., & Harkins, S. G.(1979). Many hands make light the work: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loaf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822-832.

- Lazarus, R. S.(1982). Thoughts on the relations between emotion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37, 1019-1024.
- Lazarus, R. S.(1984). On the primacy of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124-129.
- Leary, D. E.(Ed.)(1990). *Metaphors in the history of psychology*.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fcourt, H. M.(1966).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65, 206-220.
- Lepper, M. R., Greene, D., & Nisbett, R. E.(1975). Turning play into work: Effects of adult surveillance and extrinsic rewards on children's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479-486.
- Leung, K., & Bond, M. H.(1982). How Americans and Chinese reward task-related contributions: A preliminary study. *Psychologia*, 25, 2-9.
- Leung, K., & Bond, M. H.(1984). The impact of cultural collectivism on reward allo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793-804.
- Lewinsohn, P. M., Mischel, W., Chaplin, W., & Barton, R.(1980). Social competence and depression: The role of illusory self-percep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9, 203-212.
- Lindzey, G.(Ed.)(1954).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Cambridge MA: Addison-Wesley.
- Lindzey, G., & Aronson, E.(Eds.)(1969).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2nd ed.). Reading, MA: Addison-Wesley.
- Lindzey, G., & Aronson, E.(Eds.)(1985).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3rd ed.). New York: Random House.
- Liu, I. M.(1986). Chinese cognition. In M. H. Bond (Ed.), *The psychology of Chinese people*(73-105).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Maehr, M.(1974). Culture and achievement motivation. *American Psychologist*, 29, 887-896.
- Maehr, M., & Nicholls, J.(1980). Culture and achievement motivation: A second look. In N. Warren (Ed.), *Studies in cross-cultural psychology*(Vol. 2, 221-267). New York: Academic Press.
- Mann, L.(1988). Culture and conformity. In M. H. Bond(Ed.), *The cross-cultural challenge to social psychology*(184-187). Newbury Park, CA: Sage.
- Markus, H. R., & Kitayama, S.(1991a).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R., & Kitayama, S.(1991b).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J. Strauss & G. R. Goethals(Eds.),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New York: Springer-Verlag.
- Markus, H. R., & Kitayama, S.(1994a). A collective fear of the collective: Implications for selves and theories of sel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68-579.
- Markus, H. R., & Kitayama, S.(1994b).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 and emotion: Implications for social behavior. In S. Kitayama & H. R. Markus(Eds.), *Emotion and culture: Empirical investigations of mutual influe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arkus, H. R., Mullally, P. R., & Kitayama, S.(1997). Self-ways: Diversity in modes of cultural participation. In U. Neisser & D. Jopling(Eds.), *The conceptual self in context*(13-61).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kus, H. R., & Zajonc, R. B.(1985). The cognitive perspective in social psychology. In G. Lindzey & E. Aronson(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3rd ed., Vol. 1, 137-230). New York: Random House.

- Marriott, M.(1976). Hindu transactions: Diversity without dualism. In B. Kapferer(Ed.), *Transaction and meaning: Directions in the anthropology of exchange and symbolic behavior*(109-143). Philadelphia, PA: Institute for the Study of Human Issues.
- Maslow, A.(1968). *Towards a psychology of being* (2nd ed.). New York: Van Nostrand.
- Matsui, T., Kakuyama, T., & Onglatco, M. L.(1987). Effects of goals and feedback on performance in group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2, 407-415.
- McAdams, D. P.(1980). A thematic coding system for the intimacy motiv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4, 413-432.
- McAdams, D. P.(1982). Experiences of intimacy and power: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motives and autobiographical mem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292-302.
- McArthur, L. Z., & Baron, R. M.(1983). Toward an ecological theory of social perception. *Psychological Review*, 90, 215-247.
- McClelland, D. C.(1963). Motivational patterns in Southeast Asi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hinese case. *Social Issues*, 19, 6-19.
- McClelland, D. C.(1985). *Human motivation*. Glenview, IL: Scott, Foresman.
- McClelland, D. C., Atkinson, J. W., Clark, R. A., & Lowell, E. L.(1953). *The achievement motive*.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Meade, R. D., & Barnard, W. A.(1973). Conformity and anti-conformity among Americans and Chines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9, 15-24.
- Meade, R. D., & Barnard, W. A.(1975). Group pressure on American and Chinese femal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6, 137-138.
- Miller, J. G.(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da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61-978.
- Miller, J. G.(1991). A cultural perspective on the morality of beneficence and interpersonal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nual*, 15, 11-23.
- Miller, J. G.(1994). Cultural diversity in the morality of caring: Individuality oriented versus duty-based interpersonal moral codes. *Cross-Cultural Research*, 28, 3-39.
- Miller, J. G.(1997). Cultural conceptions of duty. In D. Munro, J. F. Schumaker, & S. C. Carr (Eds.), *Motivation and culture*(178-192). New York: Routledge.
- Miller, J. G., & Bersoff, D. M.(1992). Cultural and moral judgement: How are conflicts between justice and interpersonal responsibilities resolv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541-554.
- Miller, J. G., & Bersoff, D. M.(1994). Cultural influences on the moral status of reciprocity and the discounting of endogenous motiv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92-602.
- Misumi, J.(1985). *The behavioral science of leadership: An interdisciplinary Japanese research program*.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Mizokawa, D. T., & Ryckman, D. B.(1990). Attributions of academic success and failure: A comparison of six Asian-American ethnic group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1, 434-451.
- Morling, B., & Fiske, S. T.(1998). *Defining and measuring self-directed(secondary) control*.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Morris, M. W., & Peng, K.(1994). Culture and cause: American and Chinese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145-1153.

- Social Psychology*, 67, 949-971.
- Moscovici, S.(1985). Social influence and conformity. In G. Lindzey & E. Aronson(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3rd ed., Vol. 2, 347-412). New York: Random House.
- Munro, D.(1997). Levels and process in motivation and culture. In D. Munro, J. F. Schumaker, & S. C. Carr(Eds.), *Motivation and culture*(3-15). New York: Routledge.
- Munro, D., Schumaker, J. F., & Carr, S. C.(Eds.) (1997). *Motivation and culture*. New York: Routledge.
- Murphy, G.(1954). Social motivation. In G. Lindzey (Ed.),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Vol. 2, 601-633). Cambridge, MA: Addison-Wesley.
- Murray, H. A.(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yers, D.(1987). *Social psychology*(2nd ed.). New York: McGraw-Hill.
- Myers, D., & Diener, E.(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s*, 6, 10-19.
- Newcomb, T. M.(1961). *The acquaintance process*. New York: Dryden.
- Nisbett, R. E., & Cohen, D.(1996). *Culture of honor: The psychology of violence in the South*. Boulder, CO: Westview.
- Nisbett, R. E., Peng, K., Choi, I., & Norenzayan, A. (in press).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 Nisbett, R. E., & Ross, L.(1980). *Human inference: Strategies and shortcomings in social judge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Norenzayan, A., Choi, I., & Nisbett, R. E.(1998). *Eastern and Western folk psychology and the prediction of behavior*.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Parkinson, B., & Colman, A. M.(1995). Introduction. In B. Parkinson & A. W. Colman(Eds.), *Emotion and motivation*(xi-xvi). London: Longman.
- Pervin, L. A.(Ed.)(1989). *Goal concepts in personality and psychology*. Hillsdale, NJ: Erlbaum.
- Petri, H. L.(1996). *Motiv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4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Pittman, T. S.(1982).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al orientations toward others*. Paper presented at the 90th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Pittman, T. S.(1998). Motivation.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 1, 549-590). Boston, MA: McGraw-Hill.
- Pittman, T. S., Boggiano, A. K., & Main, D. S. (1992).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al orientations in peer interactions. In A. K. Boggiano & T. S. Pittman(Eds.), *Achievement and motivation: A social-developmental analysis*(37-5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ttman, T. S., & Heller, J. F.(1987). Social motiv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 461-489.
- Redding, G., & Wong, G. Y. Y.(1986). The psychology of Chinese organizational behavior. In M. H. Bond(Ed.), *The psychology of Chinese people*(267-295).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Reeve, J.(1992).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Fort Worth, TX: Harcourt Brace Jovanovich.
- Rempel, J. K., Holmes, J. G., & Zanna, M. P.(1985). Trust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95-112.
- Rosenberg, M. J.(1965). When dissonance fails: On eliminating evaluation apprehension from attitude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28-42.

- Ross, L., & Nisbett, R. E.(1991). *The person and the situation: Perspectives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Rothbaum, F., Weisz, J. R., & Snyder, S. S.(1982). Changing the world and changing the self: A two-process model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5-37.
-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1-28.
- Ryff, C., Lee, Y., & Na, K.(1995). *Through the lens of culture: Psychological well-being at midlif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
- Schumaker, J. F.(1997). Religious motivation across cultures. In D. Munro, J. F. Schumaker, & S. C. Carr(Eds.), *Motivation and culture*(193-208). New York: Routledge.
- Schmutte, P. S., Lee, L. Y., & Ryff, C. D.(1995). *Reflections on parenthood: A cultural perspective*.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Schwartz, S. H.(1994). Beyond individualism-collectivism: New cultural dimensions of values.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85-119). Thousand Oaks, CA: Sage.
- Sedikides, C.(1993). Assessment, enhancement, and verification determinants of the self-evaluation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317-338.
- Seligman, C., Fazio, R. H., & Zanna, M. P.(1980). Effects of salience of extrinsic rewards on liking and lo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453-460.
- Seligman, M. E. P.(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CA: Freeman.(윤진 · 조공호, 역. 무기력의 심리. 서울: 탐구당, 1983.)
- Sethi, S., & Lepper, M. R.(1998). *Rethinking the role of choice in intrinsic motivation: A cultural perspective*. Unpublished manuscript.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 Shedler, J., Mayman, M., & Manis, M.(1993). The illusion of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8, 1117-1131.
- Shirakashi, S.(1985). Social loafing of Japanese students. *Hiroshima Forum for Psychology*, 10, 35-40.
- Shweder, R. A.(1990). Cultural psychology: What is it? In J. W. Stigler, R. A. Shweder, & G. Herdt(Eds.), *Cultural psychology: Essays on comparative human development*.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weder, R. A., & Bourne, E.(1984). Does the concept of the person vary cross-culturally? In R. A. Shweder & R. A. LeVine(Eds.), *Culture theory: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158-199).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weder, R. A., & Miller, J. G.(1985).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erson: How is it possible? In K. J. Gergen & K. E. Davis(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erson*(41-69). New York: Springer-Verlag.
- Smith, E. R., & Henry, S.(1996). An in-group becomes part of the self: Response time evid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635-642.
- Solomon, R. H.(1971). *Mao's revolution and the Chinese political cultur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olomon, S., Greenberg, J., & Pyszczynski, T.(1991). A terror management theory of social behavior: The psychological functions of self-esteem and

- cultural worldviews.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4, 91-159). New York: Academic Press.
- Sorrentino, R. M., & Higgins, E. T.(Eds.)(1986).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New York: Guilford.
- Stevenson, H. W., & Stigler, J. W.(1992). *The learning gap*. New York: Summit Books.
- Stigler, J. W., Smith, S., & Mao, L.(1985). The self-perception of competence by Chinese children. *Child Development*, 56, 1259-1270.
- Takata, T., & Hashimoto, H.(1973). Effects of insufficient justification upon the arousal of cognitive dissonance: Timing of justification and evaluation of task. *Japanes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77-85.
- Taylor, C.(1989).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modern identiti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aylor, S. E., & Brown, J. D.(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aylor, S. E., & Brown, J. D.(1994a). Positive illusion and well-being revisited: Separating fact from fic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6, 21-27.
- Taylor, S. E., & Brown, J. D.(1994b). "Illusion" of mental health does not explain positive illusions. *American Psychologist*, 49, 972-973.
- Taylor, S. E., Peplau, L. A., & Sears, D. O.(1994). *Social psychology*(8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Tetlock, P. E., & Levi, A.(1982). Attribution bias: On the inconclusiveness of the cognition-motivation debat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 68-88.
- Tomkins, S. S.(1981). The quest for primary motives: Biography and autobiography of an ide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06-329.
- Triandis, H. C.(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J. Berman(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41-133). Lincoln, N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riandis, H. C.(1994). Major cultural syndromes and emotion. In S. Kitayama & H. R. Markus (Eds.), *Culture and emotion: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Trompenaars, F.(1993). *Riding the ways of culture*. London: Economist Books.
- Tu, Wei-Ming(1986). Selfhood and otherness in Confucian thought. In A. J. Marsella, G. A. DeVos, & F. L. K. Hsu(Eds.), *Culture and self: Asian and Western perspective*(231-251). New York: Tavistock.
- Tversky, A., & Kahneman, D.(1974).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 and biases. *Science*, 185, 1124-1131.
- Valentine, J.(1997). Conformity, calculation, and culture. In D. Munro, J. F. Schumaker, & S. C. Carr(Eds.), *Motivation and culture*(97-116). New York: Routledge.
- Watrous, B. G., & Hsu, F. L. K.(1963). A thematic apperception test study of Chinese, Hindu,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In F. L. K. Hsu

- (Ed.), *Clan, caste, and club*(263-311). New York: Van Nostrand.
- Weiner, B.(1974). *Cognitive views of human motiv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Weiner, B.(1979). A theory of motivation for some classroom experienc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1, 3-25.
- Weiner, B.(1991). Metaphors in motivation and attribution. *American Psychologist*, 46, 921-930.
- Weinstein, N. D.(1980). Unrealistic optimism about future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806-820.
- Weisz, J. R., Rothbaum, F. M., & Blackburn, T. C. (1984). Standing out and standing in: The psychology of control in America and Japan. *American Psychologist*, 39, 955-969.
- Weldon, E.(1984). Deindividuation, interpersonal affect and productivity in laboratory task group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4, 469-485.
- White, R. W.(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97-333.
- Wheeler, L., Reis, H., & Bond, M.(1989). Collectivism-individualism in everyday social life: The Middle Kingdom and the melting po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57, 79-86.
- Wiggins, J. S.(1992). Agency and communion as conceptual coordinates for the understanding and measurement of interpersonal behavior. In W. M. Grove & D. Cicchetti(Eds.), *Thinking clearly about psychology*(89-113).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Williams, T. P., & Sogon, S.(1984). Group composition and conforming behavior in Japanese students.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26, 231-234.
- Wilson, S. R.(1997). Self-actualization and culture. In D. Munro, J. F. Schumaker, & S. C. Carr(Eds.), *Motivation and culture*(85-96). New York: Routledge.
- Yamagishi, T.(1988). Exit from the group as an individualistic solution to the free-rider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4, 530-542.
- Yang, K. S.(1982). Causal attributions of academic success and failure and their affective consequences. *Acta Psychologica Taiwanica*, 24, 65-83.
- Yang, K. S.(1986). Chinese personality and its change. In M. H Bond(Ed.), *The psychology of the Chinese people*(106-170).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Yang, K. S. & Liang, W. H.(1973). Some correlates of achievement motivation among Chinese high school boys. *Acta Psychologica Taiwanica*, 15, 59-67
- Yoshizaki, S., Ishii, S., & Ishii, K.(1975). The effects of reward magnitude and choice freedom on opinion change. *Japanes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5, 35-44.
- Yu, E. S. H.(1974). Achievement motive, familism, and hsiao: A replication of McClelland-Winterbottom studie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5, 593A.
- Zajonc, R. B.(1980).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 151-175.
- Zajonc, R. B.(1984). On the primacy of affect. *American Psychologist*, 39, 117-123.
- Zajonc, R. B.(1998). Emotion.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 1, 591-632). Boston, MA: McGraw-Hill.
- Zebrowitz, L. A.(1990). *Social perception*. Pacific Grove, CA: Brooks/Cole.

Cultural Variations in Motivation

Geung-Ho Cho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the diverging effects of different cultural views of person in general, especially the self, on characteristic motivations and motivated behaviors in everyday interactions. From the review of the massive articles concerning cultural influences on motivations, it was found that cultural views of person in general and the self as independent, separate and autonomous being, predominant in the individualistic cultures, or as interdependent and relational being, predominant in the collectivist cultures, foster and encourage cross-culturally divergent needs and incentives. In individualistic cultures, self-directed motive, individually oriented achievement motive, motive to control environment, self-enhancement motive and consistency motive are relatively salient; but in collectivist cultures, other-directed motive, socially oriented achievement motive, motive to control internal desires, self-criticism motive and conformity motive are relatively dominant.